

브라질 혁신자본과 벤처생태계 현황·전망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조건 모색

2024. 2.

중소벤처기업부  
박 이 방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브라질
2. 훈련기관명 : 리우연방대학교 경영대학원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Coppead)
3. 훈련분야 : 중소기업
4. 훈련기간 : 2022. 1. 23 ~ 2023. 11. 22  
(학위취득 일정상 2023. 11. 23 ~ 2024. 2. 29까지 유학휴직)

## 훈련기관 개요

명 칭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경영대학원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Coppead)	
소재지	Rua Pascoal Lemme, 355 - Cidade Universitária, Rio de Janeiro - RJ, 21941-918	
홈페이지	<a href="https://www.coppead.ufrj.br/">https://www.coppead.ufrj.br/</a>	
설립목적	경영분야 연구자(석·박사, stricto sensu) 및 전문경영인 양성 (lato sensu)	
조직	학장(Diretor), 심의위원회(Conselho Deliberativo do Instituto COPPEAD de Administração), 운영처(Academic Office)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경영일반, 마케팅, 재무, 국제경영, 조직관리 등	
주요인사 인적사항	Elaine Tavares (석사과정 총괄 교수)	
교섭창구	운영처(Academic Office)	
	전 화	(55-21) 96983-6602
	이메일	academicoffice@coppead.ufrj.br
훈련경비	등록금 및 학비 무료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박 이 방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브라질	훈련기간	2022. 1. 23 ~ 2023. 11. 22
훈련기관	리우연방대학교 경영대학원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Coppead)	보고서 매수	113매
훈련과제	브라질 혁신자본과 벤처생태계 현황·전망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조건 모색		
보고서 제목	(상 동)		
내용요약	<p>1. 들어가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전반적인 기업환경과 혁신역량이 경쟁국들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2010년대 스타트업 투자유치 성과가 증명하듯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수준은 양호</li> <li>○ 브라질의 기업환경과 혁신역량의 세부적 측면들이 이같이 상반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제도적 수준의 미비함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음.</li> </ul> <p>2. 브라질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의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는 브라질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MCTI)가 주도한 벤처캐피털(VC) 지원 정책으로 형성되기 시작</li> <li>○ 이 시기 벤처캐피털 펀드는 주요 연기금의 출자에 크게 의존하였고 점차 업력이 오래된 후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국가 주도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임</li> </ul> <p>3. 브라질 자본시장 현황과 PE-VC 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 브라질의 자본시장은 거시경제적 변동에 취약하고 고정</li> </ul>		

	<p>수익 채권형 유가증권 위주의 보수적 성격이 강하여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는 공영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제공하는 정책자금으로 충당되는 비중이 컸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2010년대를 거치며 이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중소형 은행의 비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함.</li> <li>- 자본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의 출자 및 투자유치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li> <li>○ 이러한 추세는 브라질 국내의 투자자 친화적 제도개편, 전 세계적 스타트업 투자붐과 맞물리며 2010년대 브라질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짐.</li> <li>○ 벤처캐피털의 펀드수익률 및 회수방식, 투자 기업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브라질 국내 벤처캐피털(VC) 및 사모펀드(PE)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발굴·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li> <li>○ 그러나 시장 전체 벤처캐피털(VC) 펀드 결성 규모가 주기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2010년대 중반 정점을 끝으로 결성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li> </ul> <p>4. 브라질의 창업-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제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대 초중반 브라질은 국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가 활황을 보일 정도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통한 스케일업에서는 성과를 보였으나, 혁신생태계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오랜기간 정체됨.</li> <li>○ 2016년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 등장 전까지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 단순 창업활성화 차원의 부분적 제도 개편만 이어졌음.</li> <li>-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브라질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성적 변화에 불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기본법 마련 이후 비로소 공공-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혁신 생태계 조성 노력이 개시됨.</li> <li>-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민간 기술이전 노력 등 기업친화적 방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와 같은 정책 수단의 다양화, 국가 R&amp;D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합리화와 같은 행정간소화 등 다차원적인 변화의 토대가 마련됨.</li> </ul> <p>5. 브라질 국가혁신전략의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각종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2021년 7월 브라질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이 수립됨.</li> <li>- 내용상 동 전략은 장비·인프라 등 혁신기반 구축에서부터 관련 주체간 협력, 기관내 혁신관련 시스템 정비 등 상당히 광범위한 차원에서 현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를 예정.</li> <li>- 연관 사업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li> <li>-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역할인바, 이들이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li> <li>- 또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 기존 사업의 단순 연장에 불과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투입 예정 예산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과제가 상당하다는 점은 동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함.</li> </ul> <p>6. 브라질의 스타트업 발굴·지원체계의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 국내의 전반적 혁신생태계의 발전이 오랜 기간 정체 상태를 보인 것과는 달리 국가 기관에 의한 각종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분화·발전하였음.</li> <li>○ 한편, 일반 소기업과 구별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규제완화·투자자보호·판로확보를</li> </ul>
--	--

	<p>공간으로 한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Lei Complementar 182/2021)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스타트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부여 조항,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접근 특례 조항 등이 제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일정한 한계도 보임.</li> </ul> <p>7. 결론 :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의 스타트업 성장환경과 전반적인 혁신생태계의 수준이 한차원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li> <li>- 그 간 브라질 혁신생태계의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 이러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한 것임.</li> <li>- 이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당위성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인구 2.1억의 단일시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li> <li>-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①현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과 국내 관련 기관과의 기능적 협력점 도출을 위해 사전 연구 등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 소통채널 확보 ②브라질 현지에 먼저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 교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네트워크를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소통의 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li> <li>○ 브라질 내수 시장의 규모 및 수준, 스타트업 발굴 체계의 성숙도에 비해 브라질 벤처캐피탈(VC) 펀드의 조성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투자 자금의 공급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VC) 펀드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li> <li>- 특히, '혁신기본법'과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에 따라</li> </ul>
--	---

	<p>도입·시행중인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 규제샌드박스(sandbox regulatório)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스케일업을 노리는 브라질계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으로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서도 브라질 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전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선결적으로 필요함.</li> <li>○ 국내 이공계 연구인력의 브라질 현지 연구계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 등의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li> <li>- 브라질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에서 외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혁신프로젝트 수행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특히 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Embrapii)와 같은 공공기관 등 많은 과학기술혁신기관(ICT)들이 관련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채널을 통한 현지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li> <li>- 브라질 혁신생태계 조성은 과학기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 혁신부(MCTI)와 산하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에서 주관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 관련 기관 등과의 기관간 협력 시에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협력의제를 발굴함이 적절할 것임.</li> </ul>
--	---



## 목 차

1. 들어가며.....	10
2. 브라질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형성.....	14
2-1. 형성초기.....	14
2-2. 초기 벤처캐피털(VC)의 육성(2001~2006).....	15
2-3. 엔젤투자 기반 구축(2007~2011).....	17
3. 브라질 자본시장 현황과 PE-VC 펀드.....	19
3-1. 브라질의 자본시장.....	19
3-2. 브라질의 PE-VC 펀드.....	30
4. 브라질의 창업-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제도 정비.....	45
4-1. 브라질의 기업환경.....	45
4-2.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정비.....	46
4-3.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노력.....	52

5. 브라질 국가혁신전략의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	62
5-1. 수립과정.....	62
5-2. 전략의 구성과 목표.....	63
5-3. 전략분야별 세부내용.....	66
5-4. 동 전략의 함의.....	95
6. 브라질의 스타트업 발굴·지원체계의 고도화.....	97
6-1.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분화·발전.....	97
6-2. 국가스타트업지원추진위원회.....	101
6-3.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02
7. 결론 :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방향.....	106
참고 문헌 및 자료.....	110

## 1. 들어가며

브라질은 인구(2억 1,500만명, 세계 7위), 면적(세계 5위), 석유 및 철광석 생산(각 세계 9위·2위) 등과 같은 외형·물리적 요건과 인간개발지수(세계 87위)<sup>1)</sup> 및 부패인식(세계 104위)<sup>2)</sup>과 같은 인적·사회제도적 수준간의 편차가 매우 큰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 전반적인 기업환경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세부적인 측면들간에도 엄청난 편차를 보인다.

창업부터 투자·관료·고용·조세·청산 및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업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브라질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필리핀, 이집트 등에 뒤쳐진 124위에 그친 바 있으며<sup>3)</sup>, 국제투자컨설팅사인 TMF Group이 77개국의 기업환경을 250개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브라질이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복잡한 나라로 지적된 바 있다.<sup>4)</sup> 이러한 와중에도 브라질은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sup>5)</sup>, 이같은 사실은 브라질이 창업환경과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경제발전 방향의 필수불가결한 축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브라질의 전반적 혁신 역량은 경쟁국들과 비교해봐도 뒤쳐지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13년부터 130여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마다 총 7개 영역(input요인 5개, output요인 2개)을 기초로 측정한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순위에서 브라질은 대체로 여타 중남미 국가인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뒤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2020년 이후 그간의 스타트업 투자 성과와 국내 제도적인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멕시코 등 중남미 경쟁국보다 다소 우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타 BRICS 국가들과 비교할 시 결코 나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을 정도

---

1)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 U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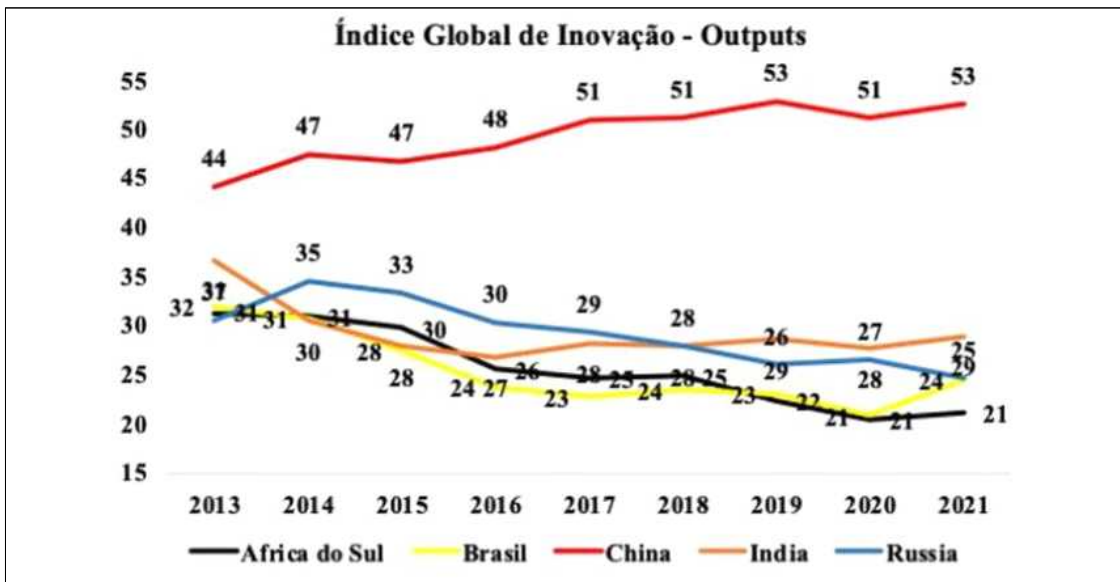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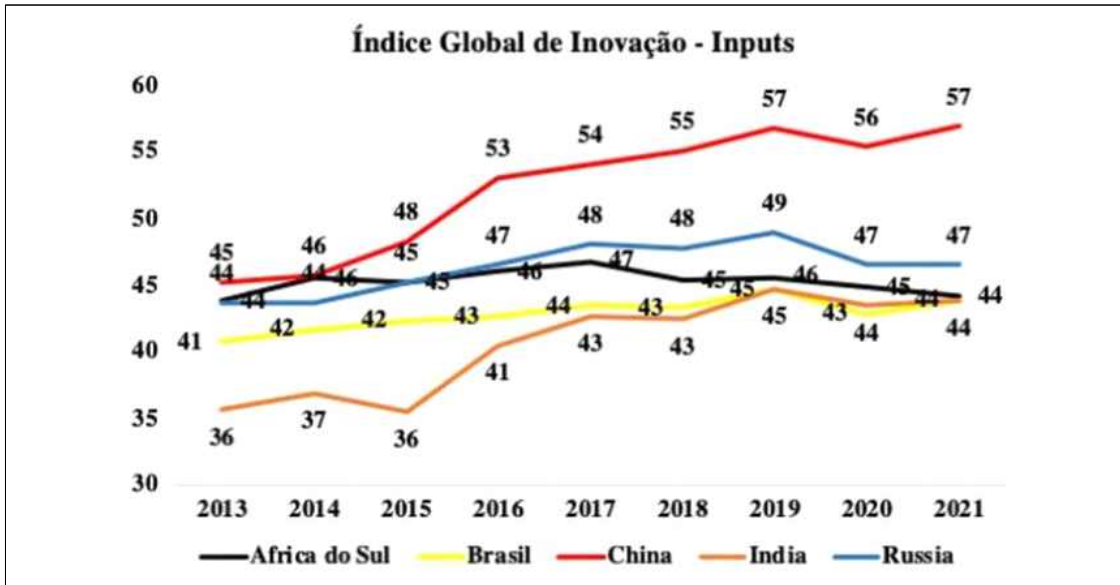
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23, Transparency International

3) Doing Business 2020, World Bank

4) Global Business Complexity Index 2021, TMF Group

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2/2023 Global Report, GEM & Babson College

인테, 2010년대 내내 국내 제도적 역량·연구인력·혁신인프라·시장 및 기업 수준 등을 나타내는 input 요인이 타 경쟁국보다 더욱 뒤쳐졌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BRICS 국가들의 글로벌혁신지수 변화 추이>

\* 출처 : Estadão('21.10.25)

위와 같이 열악한 수준의 기업환경과 혁신역량,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브라질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인 StartupBlink가 2017년부터 국가별 방대한 양의 스타

트업 경영성과·투자지표·각종인프라·이해관계자의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따라 집계되는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표(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브라질은 27위를 기록하여 이탈리아(30위), 뉴질랜드(31위), 칠레(36위) 등의 국가들보다 스타트업 성장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에 있어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멕시코(14.2%), 콜롬비아(13.4%) 등 역내 스타트업 투자유치 성과 우수국들보다 월등하였다. 이밖에, 중남미 소재 스타트업 환경 우수 도시 총 77개 중 브라질 소재 도시가 28개나 되는 등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도 역내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브라질 국민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도 우수하여 18~64세 생산가능 인구 중 약 53%가 가까운 장래에 창업 의향이 있고, 신규 창업자의 85% 이상이 운영중인 사업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화를 구상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 두 수치에서 조사대상 49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다<sup>6)</sup>.

최근 10여년간 브라질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은 비록 경쟁국들보다 저조하였으나 최근 이같은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브라질은 2018~2022 5개년간 중남미 내 경쟁국인 멕시코 등에 비해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순위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sup>7)</sup> 이를 반영하듯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사이 무려 80%에 달하는 브라질 대기업과 중기업이 기술 및 경영 혁신활동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성 증대와 재무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의 기업환경과 혁신역량의 세부적인 측면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관해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7개 세부영역의 분석내용이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32개국 중 브라질은 기업수준(35위), 시장수준(49위), 연구인력(50위)에서 중간이상의 성과를 보

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2/2023 Global Report, GEM & Babson College

7) Global Innovation Index 2022: What is the future of innovation-driven growth? p.52. WIPO

8) Práticas de inovação e suas principais barreiras.(2021). 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CNI)

였으나 제도(102위), 인프라(65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시된 제도적 수준이 미비한 이유로는 브라질 특유의 정당연합적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zão)에 기인한 비전문적·비지속적 정책 남발이 지적된다.<sup>9)</sup>

이러한 견지에서 브라질의 혁신자본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내의 관련 제도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자본을 운용하는 주요 주체·수단이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VC; Venture Capital)과 사모펀드(PE; Private Equity), 현대 혁신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둘러싼 브라질 국내의 제도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는 다음 2장에서는 벤처캐피털(VC)의 등장과 지원 정책을 통한 브라질의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브라질의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가 작동하는 제도적 틀과 최근의 성과 등을 개관한다. 4장에서는 소규모 창업활성화 정책부터 거시적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브라질의 정책적 흐름을 조망하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브라질의 혁신분야 최초의 독립적 전략으로 수립된 바 있는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의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 6장에서는 동 국가혁신전략을 뒷받침하는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2장 및 4장에서 살펴본 정책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

---

9) Veja Mercado. 2019.05.16.

## 2. 브라질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형성<sup>10)</sup>

### 2-1. 형성초기

스타트업-벤처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존재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개발 노력으로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라 하더라도 향후 시장의 형성 전망을 비롯한 거시적 안목과 함께, 해당 제품의 특허 및 실용성 검증, 대량 양산체계 확보와 초기 판로 모색 등 하나의 스타트업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초기 투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산업 내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털의 등장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브라질 벤처캐피털의 시초는 1974년 국영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설립한 3개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으나 8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장기간 존속하지는 못하였고, 1981년 설립된 1개社(CRP Companhia de Participações)만 소수의 투자·회수를 성공시키며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후, 1980~90년대 브라질의 경제난에 따른 보험·광산·통신 등 국영기업 민영화 추세에 따라 벤처캐피털과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초기 PE(Private Equity) 운용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브라질 증권거래소(BOVESPA)에 외국기관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1993년 브라질 국내 PE 운용사가 설립되어 미국계 은행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4년 브라질의 각종 연기금에 대해 벤처캐피털 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1990년대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early stage)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벤처캐피털 운용사의 출현이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현재와 같은 벤처캐피털에 의한 초기 투자 이후 후기 단계에서의 PE 투자로 이어지는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

10) Leamon, A., & Lerner, J. (2012) 및 Fonseca, M. A. M. A., Kanitz, R. V., & Bassani, R. H. (2014)에서 적시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함

이밖에, 정부기관·연기금 등의 벤처캐피털 및 Private Equity에 대한 인식 저조와 이에 따른 투자 제도 부재, 투자 후 회수(exit) 경로 부재, 창업자 및 기업가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인식 저조 등 초기 벤처생태계 출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된 것은 브라질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MCTI: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산하에서 과학기술연구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 Financiadora de Estudos e Projetos)이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착수하면서 부터이다.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은 미주개발은행(IDB)이 중남미 지역 민간투자 진흥을 위해 1993년 설립한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벤처캐피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개시하게 되었다. MIF는 중남미 각국 지원을 통해 벤처캐피털 육성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내의 벤처캐피털 육성 및 벤처펀드에 출자할 LP(Limited Partner)와 투자대상 유망기업 발굴(INOVAR I, 2001~2006)과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기반 구축(INOVAR II, 2006~2011) 노력으로 이어지는 브라질의 INOVAR 프로그램이 마련·시행되게 되었다.

## 2-2. 초기 벤처캐피털(VC)의 육성(2001~2006)

초기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할 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기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은 브라질 국내의 연기금-벤처캐피털-유망기업 간 유기적 소통·교류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에 집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연기금의 참여와 일부 출자 성과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연기금-벤처캐피털-기업 간 교류채널은 i) 기금과 벤처캐피털 (Fund Panels), ii) 기업과 벤처캐피털 (Venture Forum), iii) 잠재적 LP들에 대한 벤처캐피털 교육(VC training) 등 세 방면으로 추진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출자자(연기금)-펀드운용사(벤처캐피털)-투자유치기업(스타트업)간의 출자 및 투자 실행을 위한 의사



소통 스킬을 주입하는 초기 단계의 교육과 트레이닝이라 할 수 있다.

<p>Fund Panels (매년 1회 내외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General Partner)와 LP(Limited Partner) 육성을 위한 실전교육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집단</li> <li>■ 이들은 FINEP측이 주최한 정기적 모의 Presentation session (Fund를 조성하고자 하는 VC (GP)가 연기금 등 잠재적 LP들을 대상으로 자금모집을 위한 presentation등을 실시)에서 GP에 대해 자금모집과 투자계획 등의 구체화 등을 교육하고, LP에 대해 GP의 계획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교육</li> </ul>
<p>Venture Forum (연간 2~3회 실시, 약 40개 투자사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C(GP)와 VC투자를 받고자 하는 유망 기업(스타트업 등)간 투자상담 등을 위한 플랫폼</li> <li>■ FINEP측이 선정한 업계 전문가(주로 해당분야 VC)를 개별기업과 매칭시켜 VC투자 유치를 위한 세부방법 등을 교육</li> <li>■ 위 교육 종료 이후 해당기업은 VC 등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presentation을 실시</li> </ul>
<p>VC trai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LP 풀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연기금 등으로 하여금 VC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VC fund에 대한 올바른 평가법 등 출자 관련 교육을 실시</li> <li>■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선진사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단기 국외 연수 등 실시</li> </ul>

<표 1. INOVAR | 주요 세부 프로그램> \* 출처 : Leamon & Lerner (2012)

동 기간 중 상당수의 연기금이 점진적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일부 VC社는 펀드조성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5년 브라질 최대 기업인 국영석유공사(Petrobras)의 연금 운영기관인 Petros는 5개 벤처캐피탈사에 출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p>Stratus Gro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OVAR 프로그램을 통해 펀드조성에 성공한 1호 케이스로, 주최측인 FINEP, MIF, 브라질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 3개 LP로부터 자금유치에 성공하여 2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li> <li>■ 이후, 기업인수 등 PE 시장으로 진출</li> </ul>
<p>Fir Capit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OVAR 프로그램 수료 후, early-stage 투자에 집중하던 중 2007년 미국계 투자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Latin American pension funds 등으로부터 4천만달러 조성 성공</li> </ul>

<표 2. INOVAR | 을 통한 펀드조성 성공사례> \* 출처 : Leamon & Lerner (2012)

이밖에, Venture Forum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성공사례가 도출되었다.

Lupa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밸브 제조사.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 → 이후 기업인수 등 거쳐 BOVESPA에 상장</li> </ul>
Microsiga (추후 TOTVS에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INOVAR 프로그램 내 Pre-IPO 포럼을 통해 M&amp;A 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2개 소기업을 인수 → 이후 동 프로그램 내 등의 과정을 거쳐 BOVESPA에 상장(기존 상장사였던 TOTVS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li> <li>■ BOVESPA에 상장한 최초 남미계 IT기업으로 기록됨</li> </ul>

<표 3. INOVAR I 을 통한 투자유치 사례> \* 출처 : Leamon & Lerner (2012)

### 2-3. 엔젤투자 기반 구축(2007~2011)

2006년까지 이같은 벤처캐피털의 활동을 돕는 Inovar I 프로그램으로 인해 벤처캐피털의 투자처 탐색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육성한 벤처캐피털들이 투자수익 실현이 용이한 후단(later-stage)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는 문제점을 노정함에 따라,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은 보다 이른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드 단계(seed-stage) 투자자의 발굴과 엔젤펀드 구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드펀드(Seed Funds) 조성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 참여 민간 LP에 펀드 손실시 민간LP 출자분을 우선 보상하고 펀드에 수익이 예정된 경우 정부출자분은 원금만을 회수하여 민간LP가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sup>11)</sup>

또한, 기존 벤처포럼의 한 축으로 엔젤투자자 발굴과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방법론 및 조세 등 투자이슈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Seed Forum을 운영하여

11) 가. 손실시 민간LP 보상 : 전체 펀드조성목표액 중 최소 30%를 민간 LP가 출자(나머지 70%를 FINEP측이 매칭 출자, 단 펀드당 2천만달러 한도)하고,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시 민간 LP출자분의 20%를 FINEP측이 해당 LP측에 보상 나. 민간LP 수익 우선 보장 : 펀드에 수익이 예정될 경우, FINEP은 투자원금만을 회수 (단, FINEP은 투자원금의 50%는 우선회수 권한을 가짐)

2011년까지 총 5개의 엔젤 네트워크가 출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러한 INOVAR II에서는 벤처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전선별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털 등 투자사와 기업간 소통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럼 1회당 가장 우수한 10여개 이내의 기업만이 PT를 하도록 운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포럼에 더해 기술인큐베이터(당시 전국 400여개) 입주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포럼을 신설하였고, 우수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관행 확산을 위해 각종 운영실적이 우수한 벤처캐피털에 포상도 실시(Inovar Awards)하였다. 당시 시상식에는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정부가 초기 혁신생태계 구축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 3. 브라질의 자본시장 현황과 PE-VC 펀드

#### 3-1. 브라질의 자본시장

##### 1) 브라질 자본시장의 연혁<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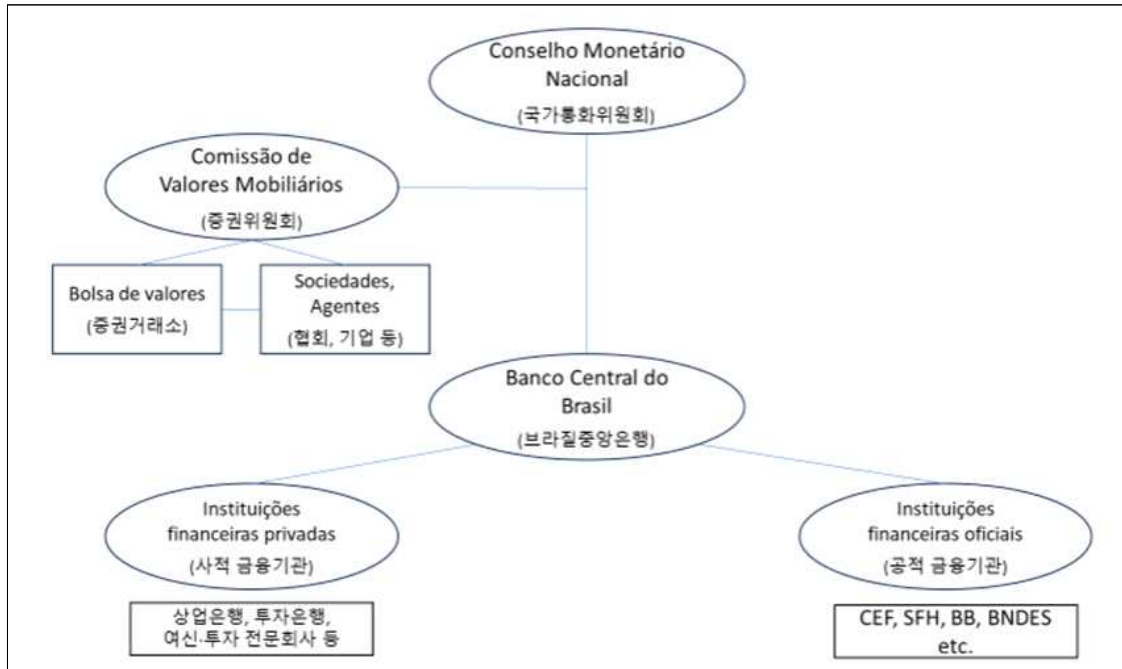
198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발전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수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 및 국영기업 위주로 자금이 유통되는 등 1990년대까지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정체되었다. 1994년 브라질 주식시장(Bovespa)의 주가발행 총액의 53%, 거래량의 80%가 국영기업이 발행한 증권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그간 학습된 투자 불확실성 우려로 채권시장이 2년 이내 단기자금 위주로 운영되고 기관투자자들은 자국 주식 비선호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장기자금 수요는 정책금융기관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Banco Nacional do Desenvolvimento)에 의한 신용공여로 충당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기업들로 하여금 민간자금 유치에 소극적이게 하여 브라질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GDP 대비 자산규모가 2007년 7.5% 수준에서 2011년 15%로 치솟는 등 민간자금의 형성·유통이 더욱 제약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대한 기업의 자금 의존도는 2016년 이후에야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업 양성을 위한 금융수단인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rivate Equity)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초 브라질 VC&PE 협회(Abvcap)가 설립되고, 브라질 증권거래소(Bovespa)는 지배구조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특별 상장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2005년에는 민간자금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 보호와 파산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신규 파산법(Lei 11.101/2005)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12) Document of World Bank (1994). The Development of Brazilian Capital Markets. World Bank. 및 BNDES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2) 현 자본시장의 규율체계<sup>13)</sup>



<그림 2. 브라질 금융 및 자본 시장의 제도적 체계> \* 출처 : 관련자료 종합

브라질 금융 및 자본시장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최상위 기관인 국가 통화위원회(Conselho Monetário Nacional)는 브라질 국내 통화·신용·환율 정책을 총괄·입안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각종 화폐·금융정책은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을 통해 집행되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물론 화폐발행 기능도 수행한다.

한편, 브라질 자본시장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증권위원회(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는 자본시장의 고도화와 지원은 물론 관리·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들(특히, 재무부 Ministério da Fazenda)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외에, 브라질 자본시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주체로서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있는데, 이는

13) Jorge Ribeiro de Toledo Filho.(2020) 및 CVM 등 해당 기관 홈페이지

기업 투자지원은 물론 주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관리, 인프라 개발 및 수출 지원 등의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Caixa Econômica Fede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60년 이후 서민금융 기관으로 브라질 전역에 산재</li> <li>• 1970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통합하고 이후 주택금융, 인프라투자, 복권사업 등으로 기능을 확대</li> <li>• 근로자 실업기금인 퇴직보상기금(FGTS; 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운영기관</li> <li>• 브라질 국내 은행들 중 자산규모 4위(1.45조헤알, 2022)</li> </ul>
O Sistema Financeiro da Habitaçã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금융을 활용한 인프라구축 및 도시계획 사업 추진체계</li> <li>• 1964년 사업 총괄기관으로 국립주택은행(BNH; Banco Nacional da Habitação)을, 관련 업무의 위탁집행을 위한 민간 부동산금융사(sociedades de crédito imobiliário) 설립</li> <li>• 저축대부조합(APEs; associações de poupança e empréstimos), 주택조합(Cooperativas de Habitação) 등도 관련 업무 수행</li> <li>• 1986년 BNH가 Caixa Econômica Federal에 흡수·통합되어 관련 기능이 이전됨</li> </ul>
Banco do Bras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8년 화폐발행기관으로 설립 후 해체·재설립 등을 거쳐 1964년 브라질 중앙은행 설립 전까지 일반 상업은행 기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적 기능(재무부 국채 인수 등) 수행</li> <li>• 1990년대 지불능력 위기에 봉착, 1992년부터 일반은행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만명의 인력 구조조정 등을 실시</li> <li>• 이후에도 연방정부 예산의 지급·결제, 금융위기시 은행들간 금리 카르텔억제 위한 시장 안정화 등 공적기능을 여전히 수행 중</li> <li>• 브라질 국내 은행들 중 자산규모 2위 (1.9조헤알, 2022)</li> </ul>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O: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2년 설립, 개발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산하 기관으로 인프라·산업, 교육, 농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신용공여</li> <li>• 재원은 자기자본 외에 근로자지원기금(FAT; Fundo de Amparo ao Trabalhador) 등 외부 자원에서 조달</li> <li>• 제휴 은행을 통한 기업 심사(PAC; Proposta de Abertura de Crédito)를 통해 신용공여를 실시하되, 상환책임은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과 해당 제휴은행이 공동으로 부담</li> <li>• 자산가치 1천만헤알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출자 지원도 수행</li> <li>• 자회사로 국내산 기계류 및 설비의 생산·판매 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FINAME(Agência Especial de Financiamento Industrial), 기업에 대한 출자 지원을 전담하는 BNDESPAR(BNDES Participações S.A.)가 있음</li> </ul>

<표 4. 브라질의 주요 공적 금융기관> \* 출처 : 관련자료 종합

국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과는 구별되는 협의의 자본시장, 즉 “투자를 통한 생산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주식과 채권 발행을 돕기 위한 각종 유가증권의 유통에 종사하는 일련의 기관, 경제적 주체, 법적인 투자기구”<sup>14)</sup>라 정의되는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은 정부기관인 증권위원회(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 및 동 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인 증권거래소(B3)와 ‘브라질 금융자본시장 참여기관협회’(ANBIM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ntidades dos Mercados Financeiro e de Capitais)가 관련 감독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무부(Ministério da Fazenda) 경제정책실(Secretaria de Política Econômica)이 브라질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진단·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3) 증권거래소

브라질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던 여러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가 2001년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ovespa; Bolsa de Valores de São Paulo)로 단일화되었고, 2008년 동 거래소가 상품 및 현물 거래소(BM&F; A Bolsa de Mercadorias e Futuros)와 통합되어 BM&FBOVESPA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2017년에는 증권지급보관관리회사(CETIP; Central de Custódia e de Liquidação Financeira de Títulos)를 합병하여 현재 B3(Brasil, Bolsa, Balcão의 이니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합병 당시 자산규모 130억달러 수준의 세계 5위 규모의 증권거래소로 평가되었고, 60만여명의 등록 투자자(자연인 기준) 수가 2021년에는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상장회사 수는 400개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빠른 성장세는 기존 고정수익 투자처(각종 국공채 등)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선호 변화인 것으로 평가된다<sup>15)</sup>. 그러나 증권시장 구조 고도화를 위한 B3의 자구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0년 B3의 전신인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ovespa)가 도입하여 현재까

14) 브라질 재무부(Ministério da Fazenda) 온라인사이트

15) Gazeta do Povo. 2020.12.30

지도 실시중인 투자자 친화적 상장기업 트랙인 O Novo Mercado이다.

소액주주 지분가치 보호 (Tag Al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주주의 지분을 변화로 인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일반주주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계약 조항</li> <li>• 지배주주의 지분이 늘어나거나(지분매수) 줄어들 때(지분매도) 일반주주 보유분도 지배주주의 매수·매도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유동물량 보장(Free Float) 및 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발행주식의 최소 25%는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의무화 (단, 일일거래량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통수준이 어느정도 보장된 주식의 경우 본 비율은 15%로 축소)</li> <li>• 우선주 발행 금지</li> </ul>
기업 지배구조 적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에 외부이사 참여를 일정비율(최소 20%) 이상 보장</li> <li>• 이사회 구성원 적정임기 보장</li> </ul>
기업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규정 및 회계기준 등에 대한 준법감시 장치 도입</li> <li>• 주주에 대한 정확한 기업정보의 상시 제공</li> <li>• 국제기준(미국 GAAP 등)에 맞는 회계처리</li> </ul>

<표 5. O Novo Mercado 상장 요건> \* 출처 : B3 온라인사이트

O Novo Mercado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함으로써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투자자 유인 및 회계·준법 감시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 리스크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3는 기업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투명성 확보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위 O Novo Mercado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류체계를 선보이고 있는데, 1) O Novo Mercado 기준에서 우선주 발행 금지요건이 제외되는 Nivel 2, 2) Nivel 2 요건을 다소 하회하여 달성하되(예컨대, Tag-along 규정을 유통지분 80%에만 적용 등), 해당기업은 동 요건 달성 등을 목표로 투자자 및 전문가와 연 1회이상 공개논의를 할 것 등의 부가의무가 발생하는 Nivel 1, 3) 정식 IPO를 실시하기 전 준비기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체계(예컨대, 우선주 발행 금지)인 Bovespa Mais, 4) Bovespa Mais 요건을 충족하지만 우선주 발행이 허용되는 Bovespa Mais Nivel 2 등이 그것이다.



#### 4) 자본시장의 범위, 참여주체, 운용수단

브라질 금융자본시장 참여기관협회(이하 ANBIMA)가 월간 공표하는 자본시장 통계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은 고정수익형(Fixed Income), 주식(Equity Offering), 혼합형(Hybrids)로 구분된다.

Fixed Income	Debêntures	• 일종의 회사채로 표면금리에 따른 확정이율을 지급함이 보통이나, 주식전환, 경영수익 공유 등 혜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Commercial Notes	• 특정일에 약정액이 지급되는 상업어음
	Commercial Papers	• 이율이 매수-매도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신종 기업어음
	Financial Bills	• 일종의 은행채로 최소 상환기간 2년이상이며 중도상환은 불가
	CR (Certificado de Recebíveis)	• 일종의 매출채권으로 농업과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이 발행
	CRA (Certificado de Recebíveis do Agronegócio)	• 농식품 관련 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 •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CRI (Certificado de Recebíveis Imobiliários)	• 부동산 관련 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 •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FIDC (Fundo de Investimento em Direitos Creditórios)	• 연금담보대출, 부동산대출 등 여러가지 대출채권을 합성하여 유동화한 증권 • 회수불능채권에 위험은 발행은행이 부담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안정된 수익을 보장 • 내국 신용시장 뿐 아니라 외국계 헷지펀드 등에도 대량으로 유통
Equity Offering	IPOs	• 유망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에 따라 시장에 보급된 주식물량
	Follow-ons	• IPO 이후 추가적인 시장 공급분
Hybrids	FIAGRO (Fundo de Investimento nas Cadeias Produtivas Agroindustriais)	• 주식·채권 혼합형 증권으로 농업 관련 주식 회사 또는 농업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농촌지역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하는 펀드
	FII(Fundo de Investimento Imobiliário)	• 주식·채권 혼합형 증권으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 부동산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지

<표 6. 브라질 자본시장 유통 유가증권> \* 출처 : ANBIMA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 상업은행에서 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을 집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과 함께 자본시장에서 투자은행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투자은행은 일반 당좌예금 등을 통한 단기자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는 등 상업은행의 영업범위와는 구별되는데, 국가통화위원회(Conselho Monetário Nacional)는 투자은행의 담당기능을 1) 기업에 대한 설비 및 운영자금의 조달 2) 기업 출자 및 유가증권의 인수 3) 금융기관간 예금 4) 정책기관 용자 집행(on-lending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Resolução 2.624/1999). 실제로 브라질 투자은행들은 자금조달 시 CDB(Certificado de Depósito Bancário), RDB(Recibo de Depósito Bancário) 등과 같은 일종의 예금증서 또는 debêntures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 투자은행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은 투자펀드(Fundos de Investimento)의 구성·운영을 통한 경우와 일반 기업의 상장(IPO) 및 채권발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장유망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벤처캐피털 펀드(venture capital fund) 및 경영참여형 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 또는 fundo de investimento em participações)가 있는데 이는 2-2.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투자펀드에 대해 증권위원회(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①고정수익형(renda fixa) ②주식투자형(ações) ③외환투자형(cambial) ④복합형(multimercados)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참고로, 동 4가지 유형의 펀드는 투자은행만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 역시 그 영업범위에 해당할시 결성·운용이 가능하다)

Renda fix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자산의 80% 이상을 사전에 확정된 표면이율을 지급받는 유가증권*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 발행 국채, 회사채, CRI(Certificado de Recebíveis Imobiliários, 일종의 부동산투자증권), CRA(Certificado de Recebíveis do Agronegócio, 일종의 농업금융증권), 각종 은행 발행증권(CDB, LCI 등) 등</li> </ul> </li> <li>• 만기가 짧은 증권에 투자하는 Curto Prazo, 각종 시장금리 등을 벤치마크 지표로 삼는 Referenciados, 연방정부 발행</li> </ul>
------------	--

	환매조건부 국채 등에 국한하여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투자접근성을 추구하는 Simples, 연방정부의 외국환 채권 등에 투자하는 Dívida Externa 등이 있음
Açõ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자산의 67% 이상을 주식 또는 주가인덱스 등에 투자하는 펀드</li> <li>• Nível I 수준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BDR)에 투자하는 BDR Nível I, 주식거래소에서 특별시장접근 트랙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Mercado de Acesso 등이 있음</li> </ul>
Camb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자산의 80% 이상을 외환 또는 환율연동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li> </ul>
Multimercad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대상 자산 분야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li> </ul>

<표 7. Fundos de Investimento의 4가지 분류> \* 출처 : 증권위원회(CVM) 사이트

다음으로, 투자은행은 기업의 주식 상장(IPO)을 주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발행 주식이 시장에서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여타 주식중개회사(corretores) 및 유통업자(distribuidores)와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발행물량에 대해 투자은행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① Stand by (또는 Firme) :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주식을 모두 주관은행이 매입하는 방식. 이 경우, 기업은 당초 목표로 한 자본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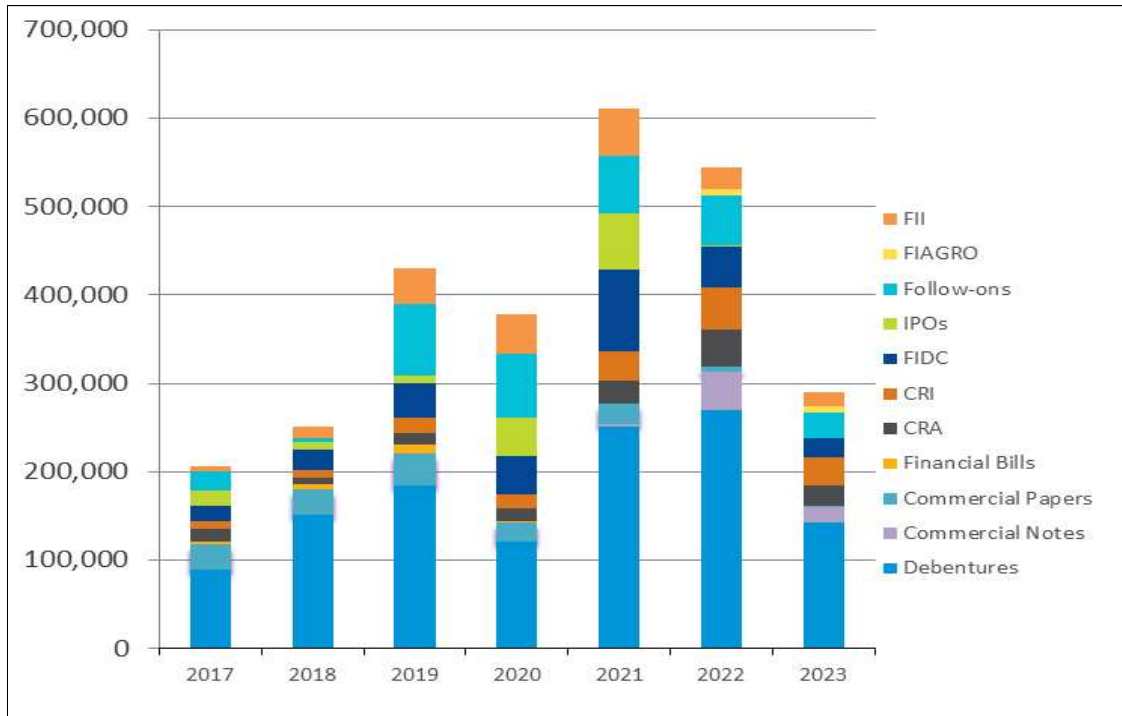
② Straight (또는 Puro) : 주관은행이 발행주식 전량을 매수하는 것으로 기업은 당초 목표 자본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③ Best effort (또는 Melhor Esforço) : 주관은행이 발행주식의 시장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별도의 매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은 당초 목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자본금 확보 불발 시, 기업의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 및 기존 주주가 선호하지 않아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

## 5) 자본시장 현황 및 특성

브라질 자본시장에서 공식 집계되는 유가증권별 분류로 바라보면 크

계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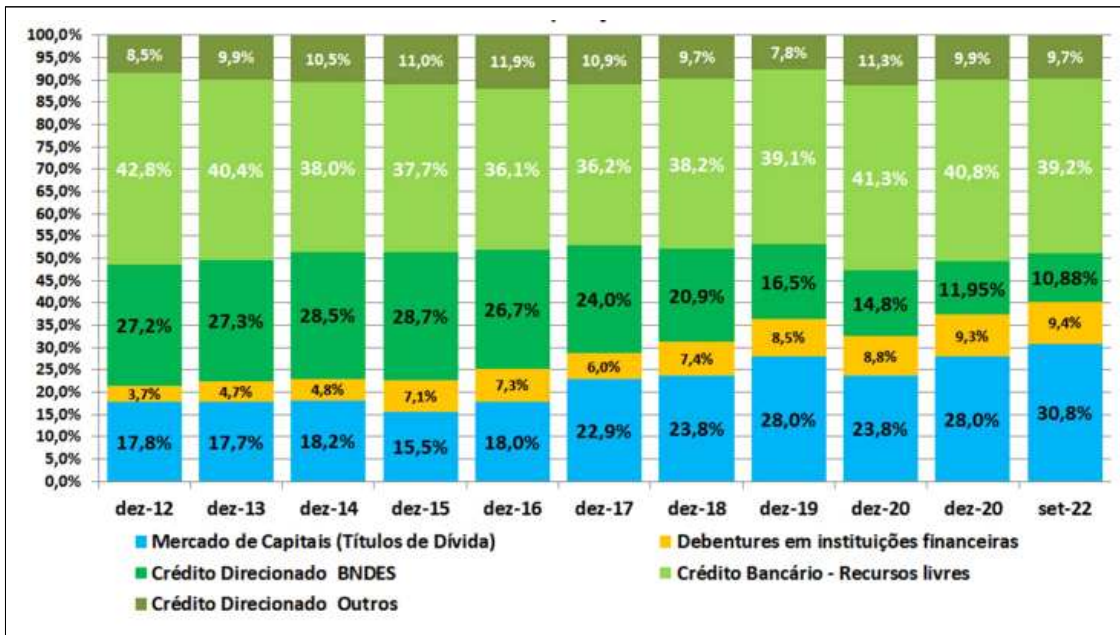
<그림 3. 브라질 자본시장의 유가증권 발행액(Mln. Real)> \* 출처 : ANBIMA (2023.9.30.기준)

첫째, 브라질 자본시장은 거시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복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6년 대통령 Dilma의 탄핵사태 이후 2017~2018년 경기불안을 겪었던 시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회복기(2021~2022)의 유가증권 발행액의 차이는 2배 내외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브라질 자본시장은 거시경제적 변동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브라질 자본시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회사채 성격을 가진 Debentures인데, 전체 유가증권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후퇴기에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경기회복기에는 FIDC 및 FII와 같은 펀드성 증권과 CRA 및 CRI와 같은 매출채권 기반 증권들의 발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셋째, IPO와 Follow-on은 브라질 국내 경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외부적 요인의 영향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회복기인 2019~2021년까지 IPO와 Follow-on은 상당 수준의 발행액을 나타냈으나, 이후 2022~2023년에는 미미한 수준의 발행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브라질의 자본시장의 특성 중 한 가지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정책금융기관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한 자금 공급 비중이다. 이는 브라질 자본시장이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거울로서 흔히 언급되는데, 그간 브라질 자본시장의 후진성으로 인해 브라질 기업들은 중장기 필요자금을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한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와 업계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한 정책금융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민간금융 중심의 자본시장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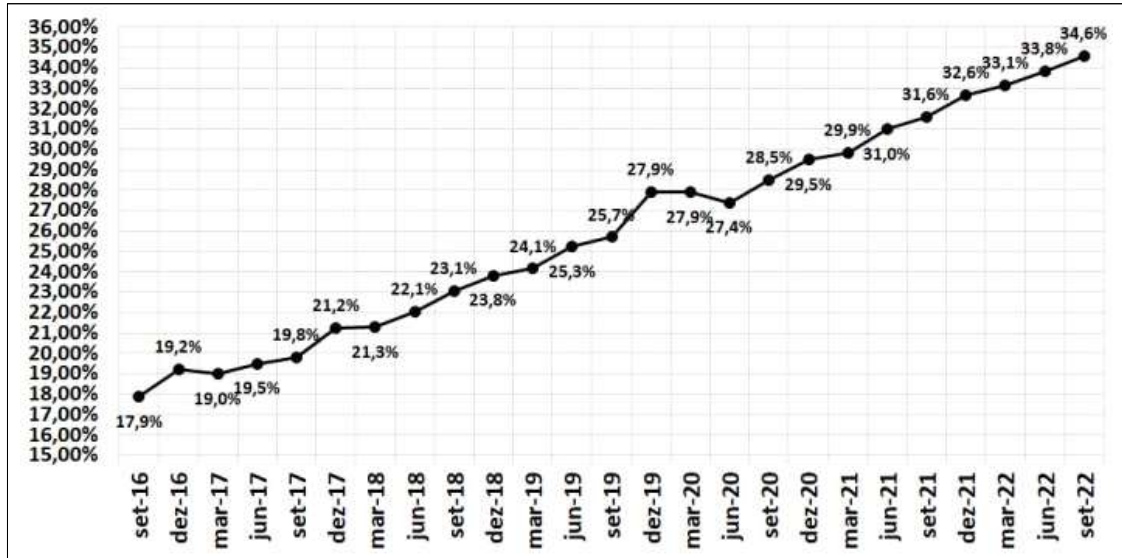
<그림 4. 비금융법인의 브라질국내 용자 조달 구성비> \* 출처 : FIPE\*16)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한 신용공여 비중(녹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이의 비중이 10.88%까지 떨어진 반면, 자본시장에서의 채권·어음 등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파랑)은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 수준을 돌파하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구성 측면에서도 브라질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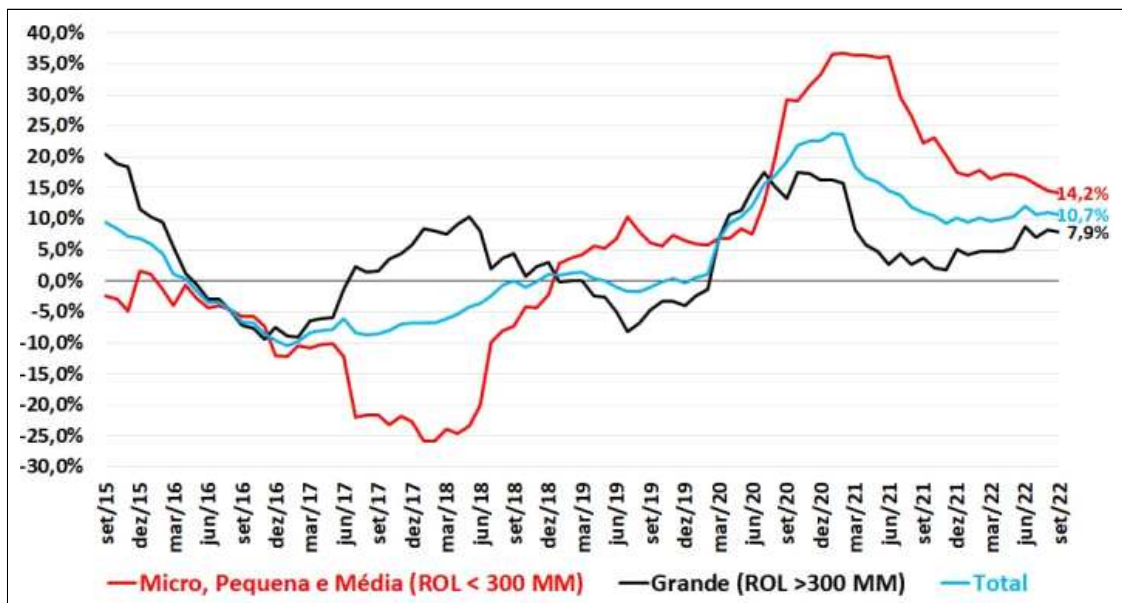
16) Fundação Instituto de Pesquisas Econômicas

황을 엿볼 수 있는데, 자금 공급기관이 다양화되는 동시에 자금 수요자인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늘고 있다.



<그림 5. 중소형 은행에 의한 내국법인 신용공여 비중> \* 출처 : FIPE

그림 5에서는 브라질 내국법인에 대한 전체 신용공여 비중에서 신용협동조합 및 디지털 은행을 포함한 중소형 규모의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대 중반 18%를 밑돌았으나 2022년에는 34%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기업규모별 은행권 대출의 연간 변화율> \* 출처 : FIPE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 대비 대출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붉은색)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등 대기업 대출 변화율(검정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을 앞서기 앞서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2. 브라질의 PE-VC 펀드

#### 1) 브라질 PE-VC 펀드 운영제도

PE(Private Equity) 및 VC(Venture Capital)은 기업에 대해 성장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자본시장(즉, 회사채 등 유통성이 강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투자받은 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완료할 때까지 수년간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투자지분이 시중에 수시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자본시장(유가증권시장)과는 구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브라질의 PE-VC 펀드를 관할하는 기본 제도 역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분하에 운영되고 있다. 즉, 브라질 증권위원회(CVM)는 브라질의 PE-VC 펀드라고 할 수 있는 FIP(Fundos de Investimento em Participações)에 대한 출자자격을 일정한 요건<sup>17)</sup>을 갖춘 기관·개인에게 한정하고, 펀드 운용은 신규 출자자의 상시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폐쇄형 구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Anexo Normativo IV da Resolução CVM 175/2022). 이는 PE-VC 펀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유망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일관되게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하도록 유인하기 위

17) i) 브라질 국내 등록된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investidores profissionais) ii) 100만헤알 이상의 금융투자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자연인 iii) CVM이 인정한 자격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그에 준한 자격을 보유한 자 iv)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 (이상 Resolução CVM 30/2021)

한 것이다. FIP는 본질상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자격이 있는 출자자로 구성된 FIP가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전략 및 기업운영에 대한 “실효적 영향력”(efetiva influência)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위 Anexo Art. 5).

FIP가 투자기업에 대해 실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i)기업의 특정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주식수 보유 ii)주주간 합의서 도출 iii)경영전략 및 기업운영에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기타 계약, 동의, 거래 등의 체결 결정 (예컨대,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 등이 예시되어 있다(위 Anexo Art. 6). 따라서 FIP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할 시에는 이러한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주식 수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받은 기업 주식의 35% 이상(주주총회 1/3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 CVM의 해당 규정에서는 이를 투자기업 전체 주식의 최소 15%로 암시하고 있다.

PE 펀드와 VC 펀드의 구별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나, 실무적 관점에서는 매출액 2천만 헤알 미만의 기업에 대한 초기자본(Capital Semente) 투자와 매출액 4억 헤알 미만의 유망기업(Empresas Emergentes) 투자를 VC 펀드로, 동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및 R&D 혁신기업(Infraestrutura & PD&I)에 대한 투자를 PE 펀드로 분류하고 있다.<sup>18)</sup>

FIP에 대해 “실효적 영향력”을 동반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장기투자만을 강요할 경우 투자자산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펀드 수익은 물론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펀드의 결성이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산에 대해 일정정도의 안정된 수익과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 경영참여형 투자지분(실효적 영향력 행사 투자) 외에 일정정도를 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상장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유형에 대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위 “실효적 영향력”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물론 별도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

18) ABVCAP(Associação Brasileira de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2014, 「Estrutura Legal dos fundos de Private Equity e Venture Capital no Brasil」 p.5 ~ p.8



브라질의 FIP 운영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FIP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매출액 2천만헤알(약 54억원) 이상에 불과한 상당히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까지 동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시장에서의 자율적 판단을 1차적인 기초로 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관련 법령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이다. 추정컨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이 기업 성장의 초기단계부터 확보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국법령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투자·회수의 낮은 예측가능성, 고질적으로 부족한 경제내 투자자금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불리한 투자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인 셈이다.

매출액	준수사항
2천만헤알 미만	아래 ①~⑥ 적용 면제
2천만 ~ 4억헤알	①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한 주주간 합의서 및 제3자와의 계약을 주주에 공개 ② 증권거래소 상장시, CVM 규정이 예시한 수준 이상의 기업 지배구조를 요건으로 하는 섹터에 상장할 것을 약정 ③ CVM에 등록된 독립회계법인에 의한 정기회계감사 실시
4억헤알 초과	위 ①~③ 사항에 추가하여 ④ 별도발행 무액면 주식 발행 및 유통 금지 ⑤ 임기 2년의 이사회 구성 ⑥ 이해충돌의 해결 위한 중재기구 설치

<표 8. FIP 투자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준수사항>

한편, FIP 운영제도상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별도 제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의 자회사인 기업을 FIP 투자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의 투자자금이 실질적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FIP가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외형상으로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큰 규모의 기업집단의 일원인 기업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기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IP에 의한

경영참여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IP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모(母) 기업집단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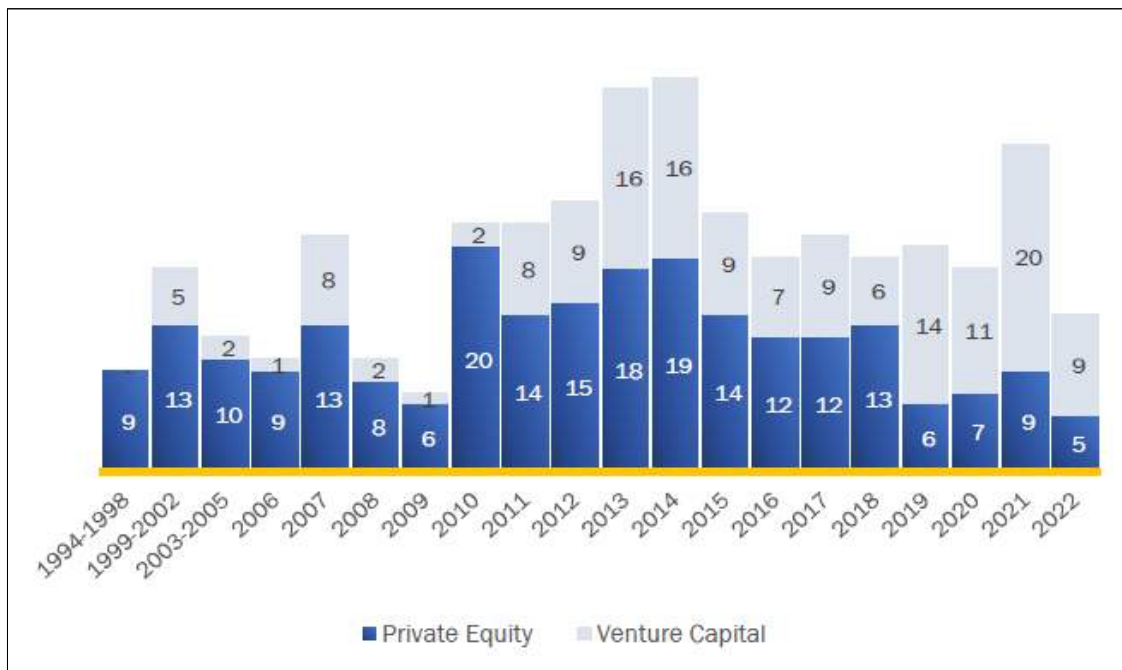
기업 매출액	기업집단 매출액
2천만해알 미만	• 1억5천만해알
2천만 ~ 4억해알	• 4억해알

<표 9. FIP 투자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준수사항>

이밖에, 브라질의 FIP 운영제도에서는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R&D·혁신기업에 대해 주식시장 기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 대상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는 낙후된 국내 인프라와 낮은 수준의 기업 R&D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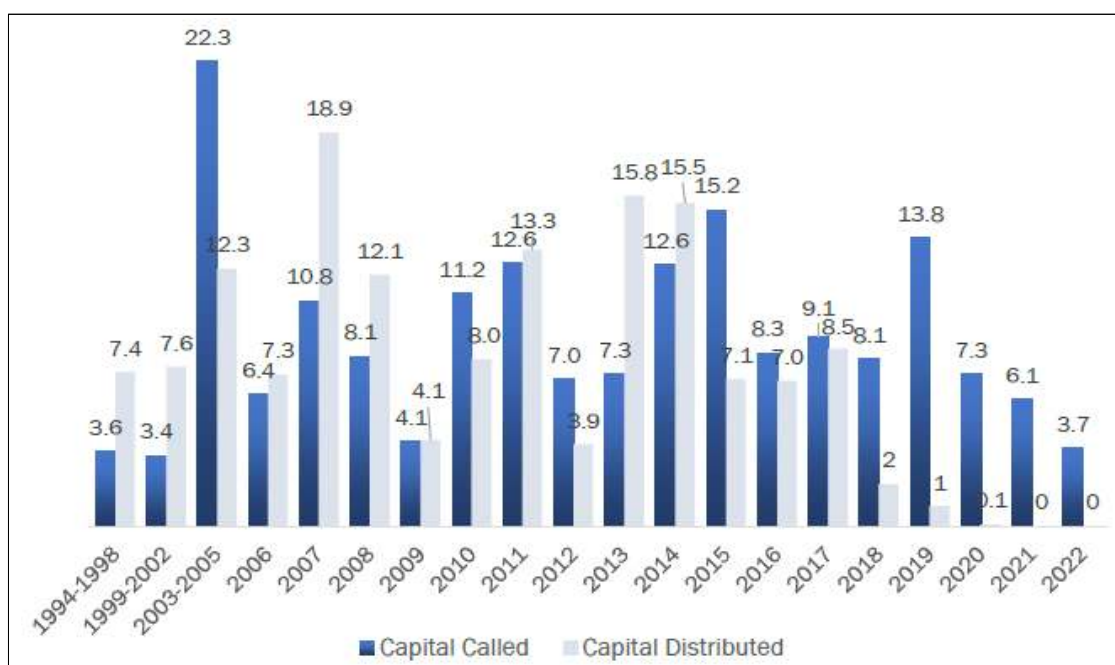
## 2) 브라질 PE-VC 펀드 현황 및 성과

### 가. 펀드 결성·회수 실적



<그림 7. 연도별 PE-VC 펀드 결성 건수> \* 출처: ABVCAP

먼저, 브라질의 PE 펀드와 VC 펀드의 결성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다. 전통적으로 PE 펀드의 결성이 VC 펀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1년부터 VC 펀드의 결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2019에는 PE 펀드를 앞서나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브라질 정부에 의한 각종 벤처투자 기반 구축 정책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과 그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다.



<그림 8. 연도별 PE-VC 펀드 결성·청산 규모(10억헤알) > \* 출처: ABVCAP

연도별 PE 펀드와 VC 펀드의 결성액 및 청산액 규모는 위 그림과 같다. 2000년대 이후 4~5년 주기로 결성금액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브라질의 국내 자금시장의 장기적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특정 산업분야의 투자주기, 대규모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펀드 결성액은 1,808억헤알에 달하는데 이 중 PE 펀드 결성액이 1,525억헤알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산술적으로 PE 펀드의 평균 결성액(6.6억헤알)과 VC 펀드의 평균 결성액(1.8억헤알)을 유추해볼 수 있다.

IRR	BRL			USD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Mean	12,7%	10,7%	15,6%	6,9%	3,7%	11,3%
Weighted mean	13,1%	11,5%	21,6%	5,9%	4,8%	13,9%
Top Quartile (Q1)	25,3%	22,7%	30,0%	19,4%	16,8%	23,2%
Median (Q2)	12,3%	11,7%	15,0%	6,6%	5,0%	11,4%
Bottom Quartile (Q3)	0,0%	0,8%	-0,8%	-4,6%	-4,7%	-4,0%
Maximum	170,3%	159,0%	170,3%	191,4%	92,0%	191,4%
Minimum	-100,0%	-100,0%	-95,0%	-100,0%	-100,0%	-95,0%
TVPI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Mean	2,2	2,0	2,6	1,8	1,5	1,8
Weighted mean	1,8	1,7	2,4	1,5	1,4	2,0
Top Quartile (Q1)	2,5	2,4	2,4	1,8	1,7	2,1
Median (Q2)	1,6	1,6	1,5	1,2	1,2	1,3
Bottom Quartile (Q3)	1,0	1,1	1,0	0,9	0,7	0,9
Maximum	26,8	23,6	26,8	21,8	21,8	13,8
Minimum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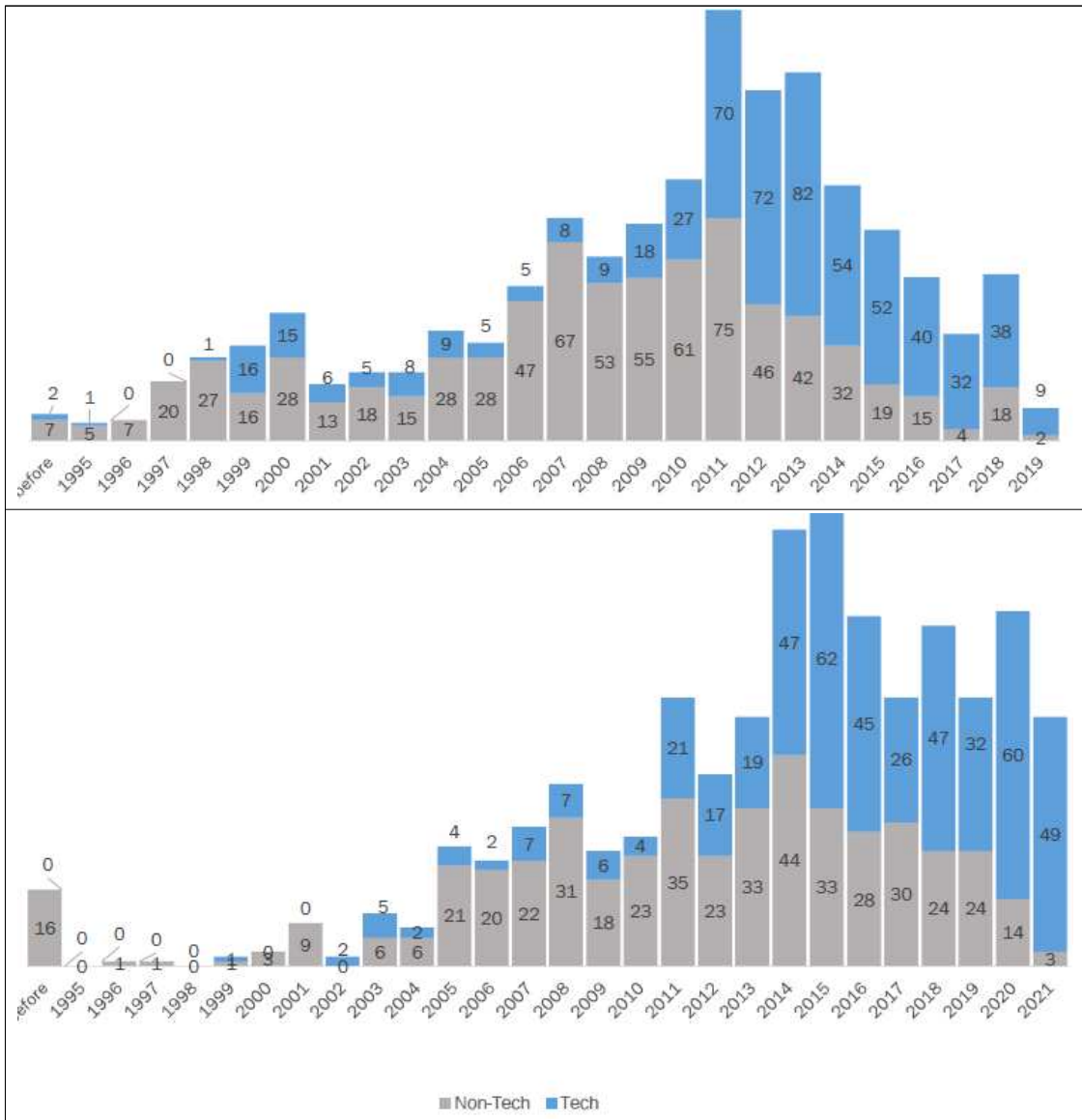
<표 10. PE-VC 펀드 수익률('94~'22, 헤알화 vs 달러)> \* 출처: ABVCAP

브라질 국내 통화 관점으로 본 PE-VC 펀드의 수익률(1994-2022)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다. 내부수익률(IRR) 기준으로 봤을 때, 동기간 PE-VC 펀드는 평균 12.7%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VC 펀드의 평균 수익률(15.6%)이 PE 펀드의 평균 수익률(10.7%)보다 훨씬 높다. 납입금 대비 회수가치(TVPI<sup>19</sup>; Total Value to Paid-in) 기준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기간 브라질 통화의 가치하락분을 감안하기 위해 달러화로 환산하여 산출할 경우에는 PE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7%, VC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3%까지 떨어진다. VC 펀드가 수익률의 수준 뿐만 아니라 환변동 리스크까지 PE 펀드보다 잘 대처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VC 펀드는 실적 상위 펀드(Q1)와 실적 하위 펀드(Q3)간 수익률 격차(30.8%)가 PE 펀드의 동 격차(21.9%)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수익분배실현액 + 미청산 자산의 현재가치(2018년기준)) / (펀드결성액)}. 투자액 대비 회수액의 배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컨대, TVPI가 1.5인 경우 1헤알을 투자하여 1.5헤알을 회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기술기반 기업과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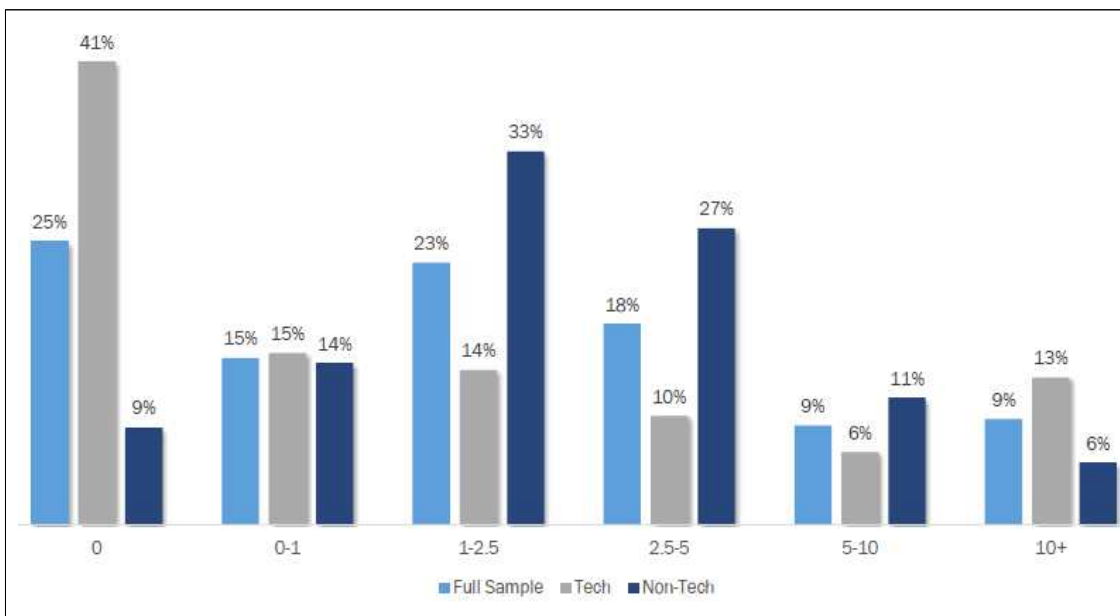
<그림 9. 기술기반-일반기업간 펀드 회수 실적(건, '94~'22)> \* 출처: ABVCAP  
 \* 상: 투자연도 기준 \* 하: 회수연도 기준

앞서 언급하였듯 제도적인 측면에서 브라질 내 PE-VC 펀드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외형적 규모(매출액)를 기준으로 양자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양자의 구분을 기술기반의 기업에 대한 투자(VC 펀드)와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PE 펀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투자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단계가 중·후위 시점(Series B~C)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술기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PE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분이 항상 명백한 것만은 아니다.

펀드 운용 및 참여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회수(Exit)’ 단계까지 무사히 이어진 투자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 두 그림과 같다. (이를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나타낸 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 실제 회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나타낸 것이 두 번째 그림이다)

기술기반(Tech) 기업에 대한 투자(사후적으로 회수 단계까지 이어져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건만을 말한다)는 2007년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2012년에 폭증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는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건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제 회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아래 그림) 약 4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부터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건을 상회하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브라질 스타트업 투자시장에 있어 2010년대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낸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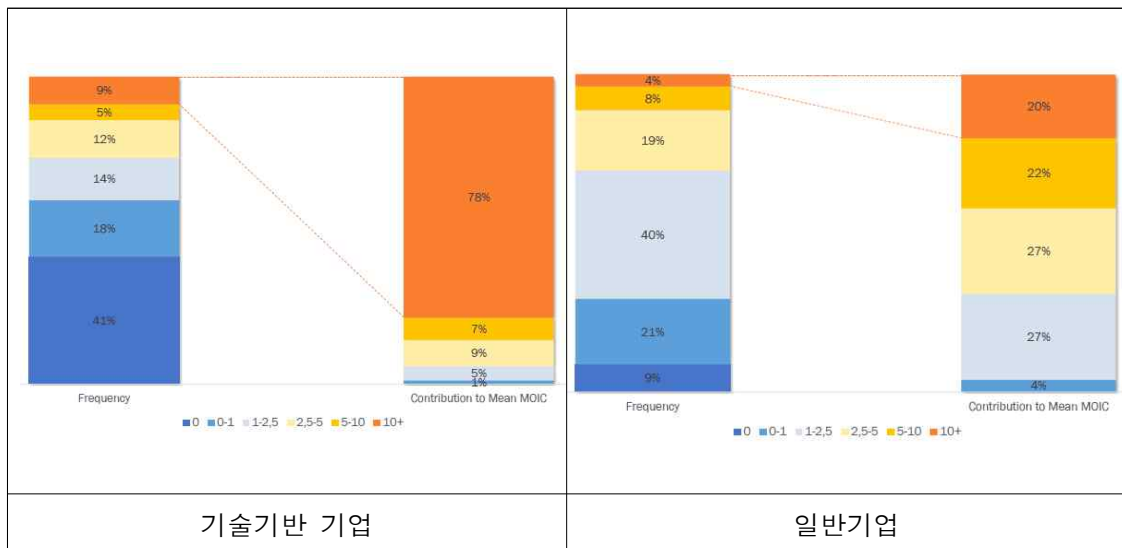
<그림 10. 기술기반-일반기업간 펀드 회수 실적 분포(수익배수, '94~'22)>

\* 출처: ABVCAP

기술기반 기업 및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 건들을 수익배수(MOIC: Multiple of Invested Cash)를 기준으로 분포시키면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동 수익배수는 최초 투자금 대비 수익금을 배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서, 예컨대 1은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회수하였음을 나타내고, 1.5는 투자원금 대비 50%의 수익을 달성하였음을 나타낸다.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위 그림에서 수익배수 0 및 0-1에 해당하는 비중)가 56%에 해당할 정도로 성공확률이 낮지만, 나머지 44%에 해당하는 “성공한” 투자건(위 그림에서 수익배수 1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그래프)은 최대 수익이 150%인 경우(수익배수 1~2.5)가 14%, 최대 수익이 400%인 경우(수익배수 2.5~5)가 10%, 최대 수익이 900%인 경우(수익배수 5~10)가 6%, 최대 수익이 900% 이상인 경우(수익배수 10 이상)도 1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는 손실 발생 확률이 23%(위 그림에서 수익배수 0 및 0-1에 해당하는 비중)에 불과하다. 나머지 “성공한” 투자건의 수익률은 기술기반 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지만 매우 양호한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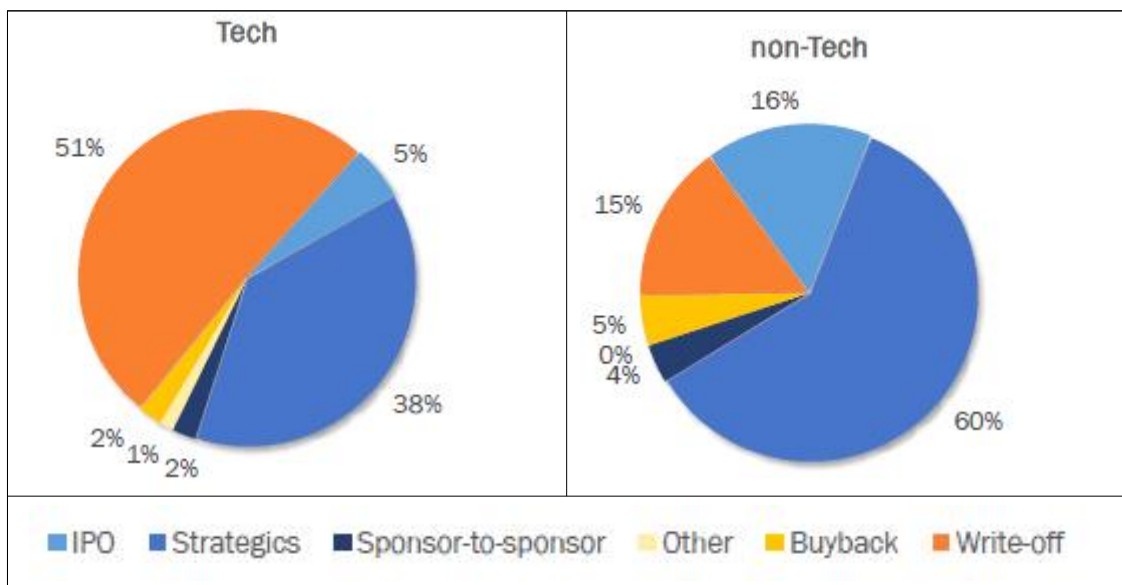
<그림 11. 평균 수익배수 기여도 비교(기술 vs 일반, '94~'22)> \* 출처: ABVCAP

기술기반 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건의 평균 수익배수(MOIC)가

양자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내막은 매우 대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건의 경우 일부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 투자건이 전체 “평균” 수익배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VC 펀드의 근본 취지로 보아 매우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인데, 수익배수 상위 14%에 해당하는 투자건이 전체 평균 수익배수에 85%가량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익배수 상위 12% 투자건들이 전체 평균 수익배수에 기여하는 정도는 42%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분포 또한 일부 수익률이 높은 투자건으로 인한 전체 평균치의 상향 현상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기술기반 기업의 분포도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 다. 투자회수 방식별 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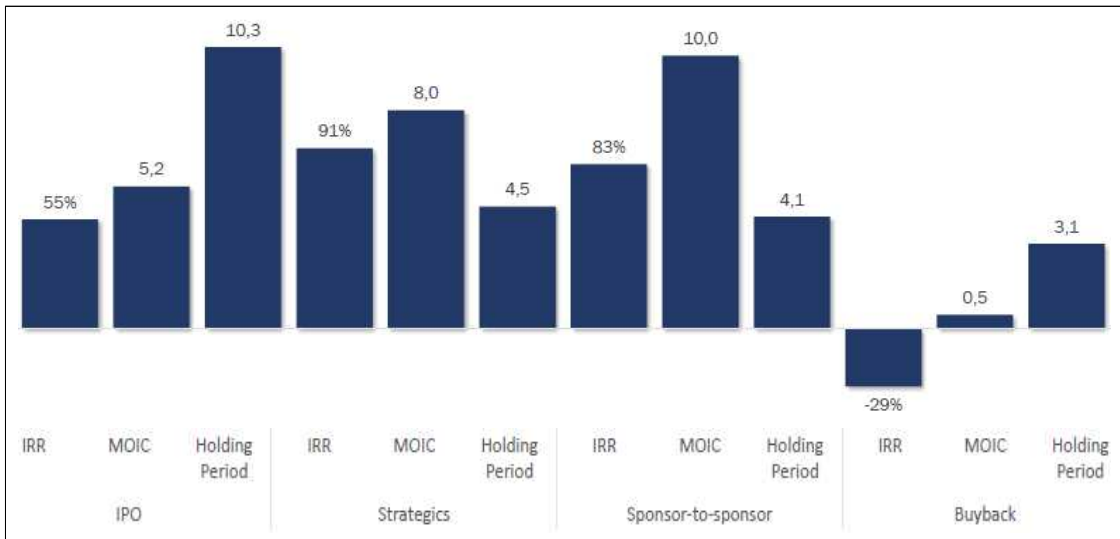
<그림 12. 투자금 회수(Exit) 방식별 분포 > \* 출처: ABVCAP

PE-VC 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Exit)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i)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시장 상장(위 그림 IPO) ii) M&A 등 타 기업으로부터의 전략적 매수(위 그림 Strategics) iii) 투자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매수(위 그림 Sponsor-to-sponsor) 등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투자금 회수(Exit)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투자지분을 더 장기로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워 그림 Buyback), 최악의 경우 회계상 손실처리 과정(워 그림 Write-Off)을 거치게 된다.

브라질 PE-VC 펀드의 경우 투자금 회수는 타 기업에 의한 M&A 등 전략적 매수자에 대한 지분 판매를 통한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기술기반 기업과 일반 기업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워 그림에서 보듯 일단 투자이익이 발생한 포트폴리오 기업(즉, 손실을 피한 포트폴리오 기업) 중 대부분이 전략적 매수자에 의한 인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비율은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극히 일반적인 수준의 비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회수(Exit) 방식별 수익률 및 지분보유기간(기술기반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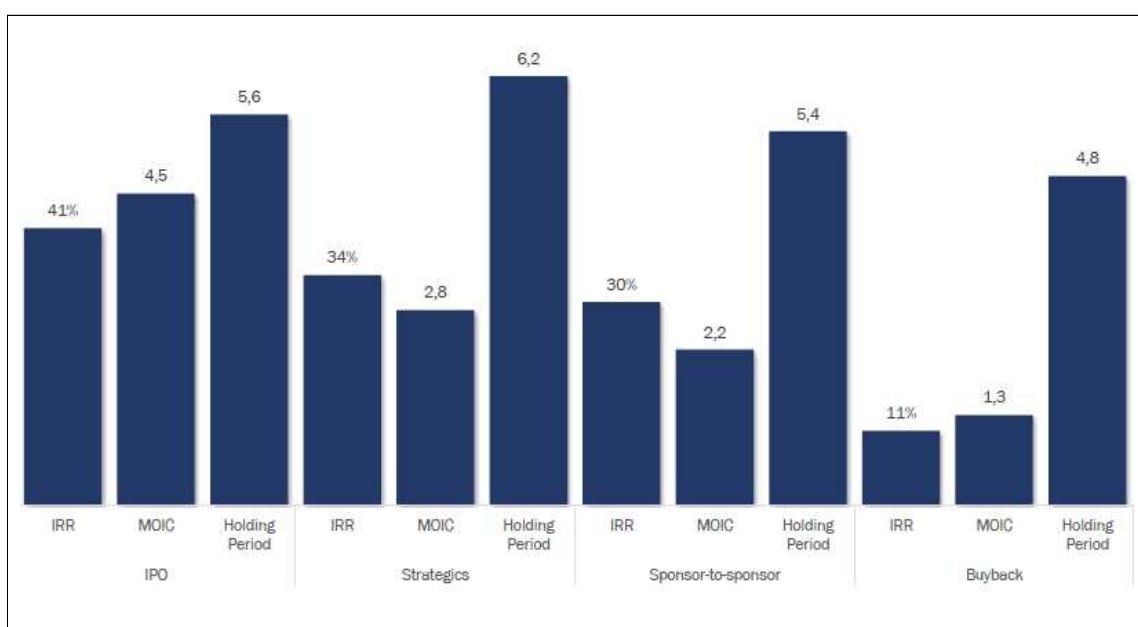
\* 출처: ABVCAP

VC-PE 펀드가 투자한 기술기반기업 지분의 회수방식별 수익률과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Sponsor-to-sponsor 방식에 의한 회수, 즉 투자은행 등 타 금융기관 또는 타 투자펀드에 의한 매수를 통한 방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지분보유기간이 가장 짧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말해, 극소수의 유망한 startup일수록 투자은행 또는 타 투자펀드에 매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 기업 등 전략적 매수자를 통한 매각방식은 수익률이 Sponsor-to-sponsor 방식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지분보유기간이

다소 높다. 이는 Sponsor-to-sponsor 방식을 통한 매각에 실패한 startup을 비롯한 여타 유망 startup의 지분이 최초 투자실현 이후 5년 이내 조기에 타 기업에 매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시장 상장(IPO)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위 두가지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일 뿐 아니라, 지분 보유 기간 또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C 펀드 독자적인 능력으로 startup을 상장기업 수준까지 도달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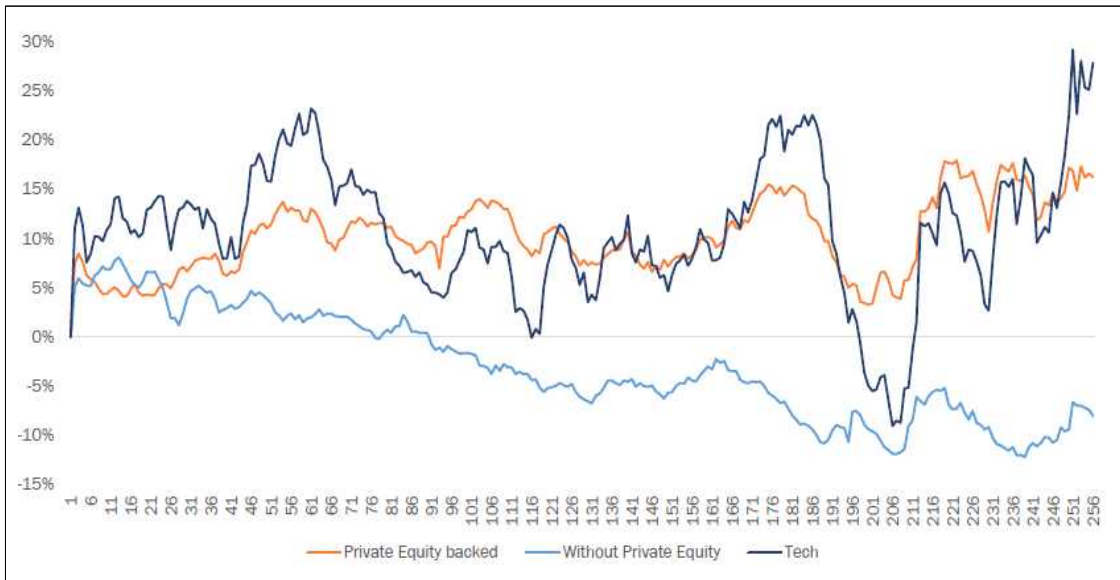


<그림 14. 회수(Exit) 방식별 수익률 및 지분보유기간(일반기업) >

\* 출처: ABVCAP

VC-PE 펀드가 투자한 일반기업의 지분 회수 방식별 투자회수 수익률을 살펴보면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대체로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회수 수익률이 기술기반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회수방식별 상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기술기업의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Sponsor-to-sponsor 방식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전략적 매수자에 대한 매각 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오히려 IPO를 통한 방식의 수익률이 나머지 두 경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투자지분 보유기간의 측면에서도 기술기반 기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기업의 경우 IPO까지 걸리는 기간이 투자실현 이후 5~6년에 불과한데 반해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매수자에 대한 매각을 통한 회수 방식이 이 IPO의 경우 기술기반기업의 그것에 비해 훨씬 빠른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5. 2019~2021 IPO기업들의 1년조정 주가수익률> \* 출처: ABVCAP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Startup의 경우 상장 이후 주가변동률을 통해 사후적으로 VC-PE 펀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그림은 2019~2021년 브라질 주식거래소(B3)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PE 펀드의 도움을 통해 상장한 기업(주황색), 그렇지 않은 기업(하늘색), PE 펀드의 도움 여부를 불문한 신규 상장한 기술기반 기업을 대비하고 있다.

위 그림은 PE 펀드의 도움을 받아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다른 경로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기술기반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익률의 수준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유망 Startup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 VC-PE 펀드의 역할이 크고, 해당 startup이 공개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한 이후에도 훨씬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브라질의 주요 Venture Capital 운용사

2023년 현재 브라질에는 80개 이상의 VC 펀드가 총 110억헤알 규모의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성장시키고 있는 주요 Venture Capital 펀드 운용사는 아래와 같다.

회사명	주요실적
Bossa In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설립,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업 등 900여개사 이상 투자</li> <li>• 통상적으로 Pre-seed 또는 시드 단계의 기술기업에 대해 10만~50만헤알 정도의 투자 시행</li> <li>• 투자 대상기업 탐색은 업력 1년이상, 주력 제품·서비스에 대한 PSF(Problem-solution-fit)가 완비되고, 월간 2만헤알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li> <li>• 기 엔젤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구현한 기업을 선호</li> </ul>
Aste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설립, 유망 초기기업 발굴 위주 운영, 22년 현재 45개 기업 투자, 10개 기업 회수성공</li> <li>• 2021년 브라질 소프트웨어 기업 중 최대규모 M&amp;A 성사 (Totvs 사에 의한 RD Station 인수)</li> </ul>
Big B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버드, MIT 등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AI, Machine Learning등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을 다수 보유</li> <li>• 브라질 최대의 AI기반 스타트업 포트폴리오 구축</li> <li>• '23년 현재 총 투자건(24개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13개 스타트업)이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는 기업들</li> </ul>
Monash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설립, 기업가치 10억불 이상으로 평가받는 Rappi(콜롬비아계 유통앱)를 비롯해 99, Loft, Loggi, Neon 등 브라질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실적</li> <li>•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에도 진출</li> <li>• 22년 현재 12개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중</li> </ul>
Kasz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아르헨티나계 자본에 의해 설립되어 브라질을 주 무대로 7개 펀드 총 20억불의 투자금 결성</li> <li>• '21년 남미 최대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PE 펀드(10억불) 결성</li> <li>• 총 100건 이상 투자, 22건 이상의 회수 실적 보유 ('21년 브라질 모바일결제 기업 PicPay에 의한 스타트업 Guiabolso 인수 성사, 거래대금 약 2억헤알)</li> </ul>

Valor Capital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미국계 자본에 의해 설립. 미국과 브라질 시장에서 상호 성공할 수 있는 미국계 및 브라질계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li> <li>• 브라질계 유니콘 기업인 Merama, Olist, Stone, Loft, Frete.com, Gympass, Cloudwalk 등에 투자 실적</li> <li>• 미국계 금융기관 통한 브릿지론 기회제공, 기존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 채용박람회 등 사후 네트워크 비즈니스 제공</li> </ul>
Redpoint Ven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칭 “브라질 최초의 실리콘 밸리 태생 투자사”</li> <li>• Creditas, Olist, Gympass, RD Station 등 브라질계 대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실적</li> <li>• 2020~2021년 7개 회수 실적 달성</li> </ul>
Can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엔터테인먼트, 바이오헬스, 마케팅 및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 투자 시행 중</li> <li>•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전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li> <li>• 총 100건 이상 투자, 8건의 전략적 회수 성공</li> </ul>

<표 11. 브라질의 주요 벤처캐피털 펀드 운용사>

## 4. 브라질의 창업-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제도 정비

### 4-1. 브라질의 기업환경

전통적으로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조세·통관·고용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서 평균치를 한참 하회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브라질의 기업환경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브라질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필리핀, 이집트 등에 뒤쳐진 124위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투자컨설팅사인 TMF Group이 77개국의 기업환경을 250개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브라질은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복잡한 나라로 조사된 바 있다<sup>20)</sup>.

조세·고용·행정절차 등 각종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브라질 소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뜻하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는 OECD 국가 소재 기업들의 각종 제도 순응비용에 비해 1.5조헤알(약 400조원)가량이 높고, 브라질 전체 GDP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6. 브라질 소재 기업의 전주기별 제도순응비용>

20) CNN Brasil 2021.9 “Brasil é o país mais complexo do mundo para fazer negócios, diz relatório”

## 4-2.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정비

### 1) ‘1인 기업가(MEI)’ 제도의 도입 · 시행

브라질의 경우 전통적으로 납세행정의 비효율성이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위에서 언급한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 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sup>21)</sup> 브라질에 소재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IRPJ), 기업이윤세(CSSL) 등 최소 6가지에 해당하는 조세를 연방·주·시 등 서로 다른 징수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그 세율 및 유사한 세원에 대한 중복부과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계 최악 수준의 비효율적 조세행정으로 악명이 높다<sup>22)</sup>.

이 중 조세징수상의 비효율성이 국가전반적으로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면서도 특히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비효율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06년 보완법률(Lei Complementar 123/2006)에 따라 ‘소기업’ (EPP: Empresa de Pequeno Porte) 및 ‘소상공인’ (Microempresa)에 대한 납세행정을 간소화하는 차원의 단일 조세징수시스템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브라질 법인에게 적용되는 총 3개의 조세부과체계 중의 하나로서 기존의 대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적용되는 ‘실제이윤과세체계(Lucro Real)<sup>23)</sup>’, 그 미만의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추정이윤과세체계(Lucro Presumido)<sup>24)</sup>’ 이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업종 및 매출액 규모별로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위 두 가지 기존 조세징수체계와는 별도로 구분된 제3의 징수체계인 ‘간소화

21) 브라질 소재 기업들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소재 기업들은 이윤 대비 38% 적은 세액을 납부하고, 회계처리 등 조세징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89% 덜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Ministério da Economia, 2021)

22) Rodrigo (2020)

23) 기업의 순이익에 조세 부과. 순익 없으면 납세 면제. 연매출 78백만헤알(약 200억원) 이상 기업은 의무적용 대상. 금융회사 및 외국계 기업 등은 매출 관계없이 적용.

24)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을 순이익으로 간주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Lucro Real에 비해 간소화된 방식. 연매출 78백만헤알(약 2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

부과체계’ (Simples Nacional)가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세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 소기업·소상공인 뿐 아니라 브라질 전체 사업자 중 최소 73%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징수상의 행정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고<sup>25)</sup>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되어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행정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0년대까지 국가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대다수가 비공식경제(Economia Informal)로 분류되었던 개인자영업자를 조세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 병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존 ‘소기업’ (EPP: Empresa de Pequeno Porte), ‘소상공인’ (ME: Microempresa)과 구별되는 ‘1인 기업가’ (MEI: Microempreendedor Individual) 개념의 신설이다.<sup>26)</sup>

‘1인 기업가’ (MEI) 제도는 2008년 보완법률(Lei Complementar 128/2008)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기존 비공식 부문의 개인자영업자를 단기간에 걸쳐 행정체계 내로 이끌어내는데 엄청난 성과를 보이게 된다. 동 제도 출범 초기 전국적으로 4만4천여명에 불과했던 ‘1인 기업가’ 들은 제도가 시행된지 14년 만인 지난 2023년 기준 1,550만명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사업이 증가하면서 ‘1인 기업가’ (MEI)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러한 성과는 ‘1인 기업가’ (MEI) 제도로 수용된 개인자영업자들이 ‘간소화부과체계’ (Simples Nacional)에 따른 조세행정의 편의 및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화된 플랫폼상의 조세징수 서비스 활용은 개별 사업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대출 및

25) 조세징수 행정 기술적으로도 대폭 개선된 방식이 시행되었는데 ‘간소화부과체계’(Simples Nacional)를 따르는 사업자는 법인세, 사회기여세 등 총 8종의 세금을 DAS(Documento de Arrecadação do Simples Nacional)라 불리는 온라인상의 단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26) 소기업(Empresa de Pequeno Porte, EPP) : 연 매출 36만~480만 헤알(약 13억원), 소상공인(Microempresa, ME) : 연 매출 36만헤알(약 1억원), 개인자영업자(Microempreendedor Individual, MEI) : 연 매출 8.1만헤알(약 2천만원) + 종업원 1명 이하 (업종제한 : 의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직은 제외)



연금 등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공식경제 참여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 제도는 기존 비공식경제 부문에 존재하던 영세자영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극빈층의 청년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이들 ‘1인 기업가’의 54%가 흑인계층, 46%가 여성이며, 24%가 16세이상 30세이하 청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인 기업가’들은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약 78%가 공적연금 또는 저축 등에 따른 기타 소득이 없고 전적으로 자영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기도 하다.

2023년 출범한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는 신설 소관부처인 소기업소상공인창업부(MEMP: Ministério do Empreendedorismo, da Microempresa e da Empresa de Pequeno Porte)를 통해 동 제도의 확대·발전과 더불어 이들 ‘1인 기업가’(MEI)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먼저, 현 ‘1인 기업가’(MEI)로 수용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요건이 너무 협소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매출액 요건을 현 8만1천 헤알에서 14만4천 헤알까지 상향하고 최소 종업원 수를 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출범 후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사업자들의 실제 소득가치를 현행화하는 한편, 브라질 국내 극빈층 및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는 조치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비노동 인구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동 제도의 지속적인 효과와 국가재정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소화부과체계’(Simples Nacional) 제도의 주요사항을 관할하는 위원회(Comitê Gestor do Simples Nacional)에 각각 소기업·소상공인 소관부처, 지원기관, 대변단체에 해당하는 창업소기업소상공인부(MEMP), 브라질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 Serviço Brasileiro de Apoio às Micro e Pequenas Empresas), 국가소기업소상공인연맹(Comicro: Confederação Nacional das Microempresas e Empresas de Pequeno Porte)이 신규 참

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동 계층에 대한 신용지원 프로그램(Pronampe: Programa Nacional de Apoio às Microempresas e Empresas de Pequeno Porte)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창업소기업소상공인부(MEMP)는 향후 3년간 브라질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연방경제기금(Caixa Econômica Federal),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 Financiadora de Estudos e Projetos) 등을 통해 300억헤알 규모의 신용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2) ‘1인 유한기업’ (Eireli)의 등장

이처럼 간소화된 조세부과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1인 기업가’ (MEI) 제도는 국가경제 전반의 세원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권 편입 등의 1차적 목적에 더하여 후술하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동 제도가 갖는 1~2인 규모의 소규모 창업 증진 효과가 2010년대 이후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러한 1인 형태의 소규모 창업 진흥이라는 정책 기조는 브라질의 주요한 기업 형태인 유한회사의 요건에도 수정을 가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1인 기업가’ (MEI)는 그 기본적인 속성이 ‘법인체’가 아닌 ‘개인’에 대해 영리적 활동을 허용한 데 있으므로 이들이 제3자와의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재산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업과 관계되어 금융기관에 대해 융자·보증 등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였을 시 이들은 추후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자신의 사업활동과 기본적인 개인재산의 분리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경우 사업자는 기존 사업의 확장 등을 보다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신규 창업자의 유입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취지에서 2011년 관련 법률(Lei 12.441/2011)에 따라 1인으

로 구성된 유한회사(Eireli: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조치는 종래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 설립자 외 형식적으로 추가 인원을 등록시키던 관행을 사라지게 하는 외에도 브라질의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상황을 타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1인 유한기업’ (Eireli) 제도는 후일 뒤따르는 브라질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 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소규모의 자본금<sup>27)</sup>만 있으면 설립자 본인만으로 구성된 1인 규모의 창업을 정식 법인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제도는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이러한 ‘1인 유한기업’ (Eireli)에 대해 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유한기업’ (Eireli)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주관하는 것일 뿐이므로 연간 매출액 규모로 표현되는 ‘외형’에 따라 소상공인(ME: Microempresa) 또는 소기업(EPP: Empresa de Pequeno Porte) 등으로 분류되므로 조세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설명한 ‘간소화부과체계’ (Simples Nacional)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 소규모 창업 촉진을 위한 기타 조치들

2010년을 전후하여 위에서 언급한 1인 내외 소규모 창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후 2010년대 브라질의 창업 생태계는 InovAtiva Brasil과 같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수준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연구팀 등 각종 창업 이전 단계의 예비기업 및 기술역량만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019년 두 가지의 신규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2019년 보완법률(Lei Complementar 167/2019)로 도입된 ‘예비

---

27) 관련법에 따른 브라질 최저임금 수준의 100배로 규정되어 있다.

혁신기업’ (Empresa Simples de Inovação 또는 Inova Simples) 제도에서는 정식 법인 설립이 아직 되지 않은 예비기업이라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업활동을 허가한다. 자본금 등 일반 법인 허가에 필요한 필수요건 충족이 면제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담당 인력(1인)과 사업계획만 구비되면 된다. 동 제도는 기술력 등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사업활동을 조기에 허가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폐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뿐 아니라, 기본 설비 등 물적·외형적 기반이 다소 부족한 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2010년대 후반 이후 브라질의 주요 도시에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용 시험·작업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초기 단계의 판로확보 및 이에 따른 초기 매출실현까지의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동 제도는 기업이 성장경로에 따라 매출액 등 외형이 성장해나갈 경우 면세<sup>28)</sup> 등 제도상의 혜택을 축소·중단하여 추후 정식 법인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한 수준의 외형에 이르기 전까지는 정식 법인이 아님에도 은행계좌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허용하고, 특허신청 시 타 기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연관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행정기술적으로는 동 예비법인 설립 신고시 기존 법인과 구별되는 ‘Inova Simples’ 라 불리는 법인으로 등록된다. 예비법인 자체를 별도의 행정체제로 편입시키는 셈이다. 동 예비기업(Inova Simples)은 당연히 1인기업(MEI) 내지 소기업(EPP)·소상공인(ME)에게 인정되는 ‘간소화부과체계’ (Simples Nacional)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2019년 일명 ‘경제자유법’ (Lei Liberdade Econômica)이라 불리는 법률(13.874/2019)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영역에서 창업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주 또는 자치도시별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 시 단순 1회성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관청이 각종 사전적인 허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집행하고 사후 감독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

28) 연간 매출액 81,000헤알까지는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실질적인 규제순응비용을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동 제도는 이밖에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및 허가 요청시 일정기한 도과시 무조건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의제하는 묵시적 허가 개념을 도입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법상의 각종 의무를 완화·면제하며, 디지털 서류에 대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행정·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 제도는 각 주 및 자치도시 별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업종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바, 2023년 현재까지 동 제도의 집행규범을 제정·시행하는 주는 13개, 자치도시는 50개 이상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주 및 자치도시들이 점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3.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 노력

##### 1) ‘혁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한계

브라질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국가조직 구성에 반영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부처간 정책 조율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체계가 1951년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립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책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추진되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9)</sup> 그러나 1970~80년대의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 1990년대의 급격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 굵직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하였던 국가 정책적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종래 확보된 과학기술이 실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으로 이어지는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브라질은 2000년대 초반 일정수준의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29) 예컨대, 개도국으로서는 드물게 항공기 및 로켓발사체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등 우주항공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농업생산력 분야에 이바지한 농생명분야 연구성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확보한 시기에 이러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어느정도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의 결과가 산업생산 분야 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천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 도입 등의 일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04년 제정된 ‘혁신법’ (Lei da Inovação, 10.973/2004)은 외국 의존도가 큰 산업기술의 자립을 위해 자국 내 기술역량의 제고를 통한 기술자립을 목표로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동 법률은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동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브라질의 주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R&D 및 혁신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대내외 현장 부서 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등 다소간의 인프라적인 측면의 성과가 뒤따랐다.

2005년에는 관련 법률(Lei do Bem, 11.196/2005)를 통해 이들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의 성과가 개별 기업 차원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세(Imposto de Renda), 사회기여세(Contribuição Social)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산업혁신 활동을 자극할 기타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하며 위 언급한 벤처캐피탈 육성 등 일정범위의 초기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일부 성과를 제외한 국가 전반의 혁신환경 조성은 제자리걸음하게 된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은 전 세계 혁신역량 순위에서 2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 2) 포괄적 정책 틀 모색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혁신환경 조성 노력이 일부 기술개발 주체들에 대한 단순 지원책 위주의 단절성 정책에 그치면서 그 한계를 노정하던 중 국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

---

30) Global Innovation Index

된다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그 시초가 된 것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개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정보접근법’ (Lei Acesso à Informação, 12.527/2011)이다. 동 법률은 헌법적 권리인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여하한 개인 또는 법인은 이용 목적을 적시하지 않고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법률의 주요 목적과 기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가 혁신 노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법률이다. 그러나 비록 부수적이기는 하겠으나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관련 공공 연구기관이나 국공립 대학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기술적 지식과 데이터 등에 대해 일반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되었고, 후술할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틀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입법론적으로는 종래의 과학기술 관련 제도 및 정책과 각종 행정관련 개별법 체계에 상당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장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이러한 수준의 법률체계(우리나라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기본법’이라는 표현이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인 ‘기본법’ (Marco Regulatório) 수준의 입법이 요구되었던 바, 이의 원활한 입안을 위해서는 당시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까지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당시 브라질 헌법의 관련 조항(제218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국가적 책무만을 적시하던 수준이었으나 헌법 개정(Emenda Constitucional 85/2015)을 통해 동 조항체계에 ‘혁신’ (inovação)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기업의 형성과 발전” (a formação e o fortalecimento de empresas inovadoras), “기술적 거점의 설립과 유지” (a constituição e a

manutenção de polos tecnológicos), 기술의 수용과 이전(absorção e transferência de tecnologia) 촉진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시장중심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 개정헌법은 국가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교육과 혁신적 활동의 실행을 위해 민간과 공공영역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의 주요 뼈대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는데, 종래까지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한정되었으나 직업기술교육 기관까지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의 3가지 정책방향

위와 같이 헌법적 기초작업까지 병행한 후에서야 2016년 국가적 혁신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틀이라 할 수 있는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이 만들어진다. 동 법률은 국가적 경제발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에 달려있다는 전제 하에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크게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만 국한되어 왔던 단편적 정책틀에서 벗어나 전 국가적인 포괄적 혁신추진 정책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혁신활동 추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기업-과학기술혁신기관(ICT: Instituição Científica, Tecnológica e de Inovação) 간 협력 ②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혁신 촉진 ③기업의 혁신 촉진의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세 가지 축에서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 표현되는 개별 혁신주체를 지원하거나 이들간의 협력을 조성·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고로, 동 법률에서 말하는 ‘과학기술혁신기관(ICT: Instituição Científica, Tecnológica e de Inovação)’이란 2004년 ‘혁신법’ (Lei da



Inovação, 10.973/2004)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과학기술 분야 역량 발전 및 혁신 촉진을 목표로 기초·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상파울루주 50여개, 리우데자네이루 주 30여개 등 브라질 전역에 300여개가 소재해 있다. 동 기관들은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과의 점점으로 기술혁신센터(NIT; Núcleo de Inovação Tecnológica)를 설치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파울루주립대학교(UNESP: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가 설치한 Agência Unesp de Inovação, 상파울루대학교(USP: Universidade de São Paulo)가 설치한 Agência USP de Inovação, 리우연방대학교(UFRJ: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가 설치한 Inova UFRJ 등이 있다.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의 세 가지 주요한 추진방향의 개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업-ICT 간 협력 분위기 조성

동 법률은 우선 기업과 과학기술혁신기관(ICT)간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할 수 있도록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각급 정부(연방·주·자치도시)와 관련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제품·공정·서비스의 혁신을 목표로 기업, 과학기술혁신기관(ICT), 비영리 R&D기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적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 및 네트워킹,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테크노파크 설립과 같은 기술사업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같은 포괄적 프로젝트는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각급 국가기관의 주도로 여러 혁신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 ② ICT의 혁신 촉진

동 법률은 각급 정부(연방·주·지방도시) 기관이 R&D 및 혁신 프로

젝트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혁신기관(ICT) 또는 이에 소속된 개별 연구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금의 지원은 양여, 협약,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수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자금 집행과 관리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i) 프로젝트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통해 집행
- ii) 실제 자금을 지출할 시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특성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
- iii) 위 양여, 협약, 계약 등의 기간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충분한 정도여야 함. 즉, 기술적 문제 등으로 프로젝트 과업 변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등에는 기간연장이 허용되어야 함.
- iv) 세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승인된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세부 항목별 할당된 자금지출을 다른 항목에 이체하여 집행가능
- v)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관할의 ICT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해당 ICT 자체의 지불능력 부족 사태가 아닌 한 이와 연관된 다른 기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되지 아니함

### ③ 기업의 혁신 촉진

동 법률은 또한 자금, 인력, 물품, 설비 등의 국가적 지원이 R&D 및 혁신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 민간기업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수단들로 보조금·융자·출연·기술장려금·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세제혜택·장학금 지원·정부조달을 통한 구매·펀드조성·채권발행지원·공공발주R&D 투자 검토 등이 열거되어 있다.

### 4) 혁신기본법상 주요 세부 정책수단

동 법률은 개별 혁신활동 추진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 수단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제품의 판로로 기능하게 하거나, 정부 보유 자산을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여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 종래의 브라질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책수단들이다.

#### ① 동 법률상 명시된 정책수단

동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들로는 아래의 5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동 법률은 주정부의 구매력을 산업계 혁신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개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과학기술혁신기관(ICT), 비영리기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또한, 공공기관의 R&D 및 혁신과업 발주계약 대상을 비영리기관에 한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동 법률은 민간기업과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이 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부조달 시장의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성과가 기술적 리스크 등에 따라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 기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제20조제3항). 이로써, 다소 리스크가 큰 계약이라 하더라도 능력있는 기업이 발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확보한 셈이다.

셋째,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제20조제4항). 정부발주 조달시장에서의 수의계약은 시장 참여 기업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판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치는 조달시장 참여기업들의 혁신제품 개발 유인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기관 보유 부지나 설비 등을 혁신 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예컨대, 테크노 파크 또는 엑셀러레이터의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다섯째, 동 법률은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라 불리는 정부조달 방식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단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던 전통적 의미의 정부조달이 아닌 공공기관이 스스로 않고 있던 문제를 외부 기업의 기술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데, 간단히 말해 특정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매한다는 개념이다. 한 국가 내 기술개발은 동 기술개발의 수요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나온 정책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② 타 법률과의 관계

동 법률은 국가 혁신 생태계에 있어 그 이전과는 다른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개의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었다. 혁신법(Lei de Inovação), 지원협회법(Lei das Fundações de Apoio), 입찰법(Lei de Licitações), 공공계약다양화체계(Regime Diferenciado de Contratações Públicas), 연방교육법(Lei do Magistério Federal), 외국인법(Lei do Estrangeiro), 연구용물품수입법(Lei de Importações de Bens para Pesquisa), 수입면제법(Lei de Isenções de Importações), 임시고용법(Lei das Contratações Temporárias)

## ③ 기타 세부 정책수단

또한 위와 같은 조치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내용을 담은 집행규범인 Decreto(9,283/2018)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혁신활동 관련 역할과 업무소관 및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기업지원기관·공기업·공공출자기업에 속한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은 민간기업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스타트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장비 사용료 출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스타트업에 대한 현물투자가 활성화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은 일반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혁신환경 조성·발전 지원 업무가 허용되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 기관은 기술이전

과 생산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절차의 확립·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기능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은 지원 협회와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띤 기술혁신센터(NIT; Núcleo de Inovação Tecnológica)<sup>31)</sup>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공공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까지도 적시하고 있는데, 공동추진 R&D 등에 대한 성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외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작업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공공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국제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등이 출연하는 등의 각종 공공 R&D 및 혁신추진과제에 대한 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의 집행·감독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 과제 추진 시 행정적인 유연성을 보장하여 기업 및 개별 연구자의 편의를 충족시키려는 배려도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R&D 및 혁신프로젝트의 기관-기업간 공동추진 방식을 양여(termo de outorga), 제휴협약(acordo de parceria), 협정(convênio) 등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R&D 및 혁신프로젝트 추진성과가 좋은 경우 연구비 회계책임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총액의 20%내에서 지출항목간 이용·전용을 허가하였다.

이외에, R&D 및 혁신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이후 해당 결과물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분쟁 등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추진이후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R&D 및 혁신프로젝트 공동추진 당사자들은 해당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정의와 상업적 이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합의를 이룰 것이 권고된다.

셋째, 정부지원 보조금의 지출용도 확대, 정부발주 시 기업친화적 조달계약 및 절차, 혁신프로젝트 관련 수입통관 우대 등 여러 종류의 제

---

31) Lei 13.243/2016, 제2조제6호 : 기관내 혁신정책의 수행 및 동 법률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ICT가 설립한 비법인 또는 법인 조직

도적 우대사항도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R&D에 참여하는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본재 설비 구입에 해당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 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을 자극하기 위해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 및 기술장려금 등 새로운 유형의 정책이 도입되었고,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 계약 시에는 해당 발주 공공기관이 계약 이행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양도, 기술이전 등 내용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 공공기관이 R&D용 제품의 취득을 위한 조달계약 시에는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면제 한도금액을 대폭 확대(기존 1만5천헤알 → 30만헤알)하였다.

또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R&D용 수입제품의 계약 시 즉시인도(pronta-entrega) 또는 8만헤알 이하 규모인 경우 통관 필요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의 연구 또는 혁신프로젝트에 이용되는 물품·제품에 대해서는 세관 및 수입절차에 있어 우선처리 및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였다.

## 5. 브라질 국가혁신전략의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

### 5-1. 수립과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제정으로 브라질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토대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브라질 최초로 국가차원의 혁신 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이 등장하게 된다. 종래의 순수 과학기술 정책에서 분리되어 단일 혁신 전략으로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혁신기본법에서 의도한 대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혁신생태계의 주요 행위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각 산업계의 현장에서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혁신 전략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혁신 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목표를 추진할 정책체계를 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에 의해 개정된 구 혁신법(Lei da Inovação, Lei 10.973/2004)에 제시된 바처럼, “기업 현장에서의 혁신”(inovação no setor produtivo)을 추진하기 위한 실제 정책을 수립·집행·관리하는 체계를 연방 대통령령 Decreto 10,534/2020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Decreto 10,534/2020는 동 정책을 국가혁신정책(Política Nacional de Inovação, 이하 “정책(Política)”)으로 명명하고 정책(Política)의 수립·집행·관리를 위한 원칙과 체계를 제시하면서, 동 정책은 전략(estratégias), 사업(programas), 세부사업(ações)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중, 동 정책(Política)의 내용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략(estratégias)은 매 4년마다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회의체(Câmara de Inovação)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 이하 “전략”(Estratégia)) 형태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과학기술 전략의 부수적 기둥의 하나로만 취급되던 “기업 현장에서의 혁신”(inovação no setor produtivo)을 위한 동 전략

(Estratégia)이 관계부처 회의체(Câmara de Inovação)의 심의를 거쳐 최초 독립적 형태로 2021년 7월 공표되었다.

동 전략(Estratégia)은, 과학기술혁신부(MCTI;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의 주도로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체(Câmara de Inovação)에서 매 2년마다 중간검토가 실시된다.

우선, 동 전략(Estratégia)은 향후 정해진 기간동안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정하는데 관계부처 회의체(Câmara de Inovação)가 분야별 작업반을 두고 마련된 분야별 혁신전략안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마련된 개별 분야별 혁신전략과 전체 추진방향 및 목표는 Decreto 10,534/2020에서 규정한 정책(Política)의 방향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부처간 회의체(Câmara de Inovação)는 심의를 통해 기존 존재하는 각종 행정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동 전략(Estratégia)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행정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제 추진하는 주(Estado) 및 지방자치도시(Município)들은 반드시 동 전략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동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연방정부로부터 예산법(Lei Orçamentária Anual)에 따라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2. 전략의 구성과 목표

동 전략(Estratégia)은 우선 2024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량화하여 총 8개의 포괄적 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목표	지표	출처	기준치 (연도)	목표치 (2024)
개별기업의 혁신사업 투자 증가	기업의 순 매출액 대비 혁신사업 지출액	PINTEC*	0.62% (2017)	0.80%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공공투자증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간 예산	LOA**	4,689,542,709헤알 (2020)	8십억헤알
기업의 혁신지향성 증대	혁신지향적 기업 비중 증가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혁신사업 수행 기업 비중)	PINTEC	33.6% (2017)	50%
혁신사업 세제 인센티브 활용 기업 수 증가	수혜기업 수	과학기술 혁신부	2,824개 (2019)	3,500개 사



기업 내 혁신사업 종사자 수 증가	기업 R&D 기술·연구 인력 수	PINTEC	99,063명 (2017)	12만명
IDEA 지표 내 고등교육 지수 5.2 달성	IDEA***	교육부	4.2 (2019)	5.2
기술·직업훈련학교 등록자 3백만건 달성	등록건수	교육부	2,951,979건 (2020)	3백만건
대학입학 등록자 비율 증가	대학입학 등록자 비율	교육부	34.6% (2017)	39.6%

\* 브라질의 각종 통계 수집·처리 기관인 국립 지리통계원(IBGE)이 3년마다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조사

\*\* 연간 예산법

\*\*\* 기초교육발전지수(Índice de Desenvolvimento da Educação Básica)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8개 지표 중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가 4개, 기업 역량 증가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가 4개이다. 이와 같이 동 전략(Estratégia)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및 인적자원이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 증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 전략(Estratégia) 세부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전략 분야(Eixos)별로 추진 대상 사업(Iniciativa)이 적시되고, 개별 대상 사업(Iniciativa)은 다시 각 단위과제(Ação)로 구성되는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분야(Eixo)	사업(Iniciativa) [식별코드]
기술지식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01] 경제전략적 영역의 기술혁신 촉진</li> <li>• [B167] 혁신생태계 내 영역간 파급력을 갖는 기술개발 촉진</li> <li>• [B188] R&amp;D인프라 및 혁신환경의 지속적 개선·관리</li> <li>• [B633] 기술혁신센터(NIT)의 산학협력 기능 강화</li> <li>• [B729] 군-산-연 협력기반 구축 위한 국방분야 혁신 지원시스템 마련</li> </ul>
혁신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034]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국제적 파트너십 및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li> <li>• [C036] 혁신 필수 영역에 인적자원 유치 프로그램 등 마련</li> <li>• [C039]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혁신 문화 확산 지원</li> <li>• [C040] 혁신 현장과 관련 직업군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지방 혁신생태계 조성</li> <li>• [C185] 연구기관(ICT), 지역적·국가적 과업, 관련 직업군들간 전략적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83]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여러 분야 네트워크 형성·강화·확산, 주요 혁신주체 발굴, 지원 구조 구축)</li> <li>• [C442] Lei 13.243/2016에서 규정된 수단·체계 등 이행·확산·활용의 지속적 지원 및 평가</li> <li>• [C466] 국제적 선도·우위 분야의 국제적 확산</li> <li>• [C488] 잠재 혁신 아이디어의 창출·개발·검증을 위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및 강화</li> <li>• [C573] 혁신관리 수단의 중요성 증진, 혁신활동 위험 감소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ICT) 내 혁신관리시스템 도입 유도</li> <li>• [C647]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연구기관(ICT) 보유 기술 이전 촉진</li> <li>• [C794] 지원기관의 기관평가·연구자평가 기준·방식을 연구결과 발표 외에 기업파트너십 지표를 기반으로 개선</li> <li>• [C863] 국내 연구개발혁신활동에 관한 데이터·연구·제도·지침 등의 통합 플랫폼 구축</li> </ul>
<p>교육시스템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194]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 및 학생 중심의 교육방법론 함양 위한 지속적인 각급 교원 훈련</li> <li>• [E260] 기업현장에 파급력이 큰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교육 중심으로 학업 및 연구 장학금 제공 확대</li> <li>• [E487] 국내 및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등 기술분야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li> <li>• [E500] 기초교육에서 비롯되는 혁신능력 개발 및 정밀과학, 농생명·기술·공학에 대한 관심 유도</li> <li>• [E528] 기초교육 수준부터 학생들의 혁신역량 함양 위한 지원 사업 개발</li> <li>• [E619] 기초교육부터 기업가적 실습 촉진</li> <li>• [E623] 학부 및 대학원 커리큘럼에 실용적·학제적 접근법 도입</li> <li>• [E668] 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교육기관, 시민사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교시장과 사회의 수요에 맞춘 교육콘텐츠 개발</li> <li>• [E700] 고급인재 및 해외 연구자 유치 사업 개발</li> <li>• [E788] 유형별·수준별 교육과정에 디지털문화 개발 촉진</li> <li>• [E940] 기업현장에 대한 접근성 및 경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실용화 활성화</li> </ul>
<p>지원사업간연 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015] Lei 10.973/2004 제19조에 규정된 지원수단(보조금, 대출, 출자, 기술보너스, 기술발주, 세제혜택, 학자금지원, 정부구매, 직간접 투자 등) 활용 촉진</li> <li>• [F113] 기술적 고위험 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금 우선 지원</li> <li>• [F162] 투자지속성 유지 위한 재정·금융·협업 지원체계 개선</li> <li>• [F213]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민-관 협업, 민-관 협력형 RD&amp;I 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li> <li>• [F369] 연구기관(ICT) 보유 사업화 유망 기술에 관한 전략정보를 활용하는 혁신 네트워크 형성 촉진</li> <li>• [F575]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미션 중심의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구조 마련</li> </ul>

혁신제품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009] 스타트업-투자자간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li> <li>• [M285] 연구기관(ICT)의 혁신환경이 스타트업·시장·생산현장 간 교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li> <li>• [M335]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법·기술·신지식의 도입을 통한 기업 생산공정 혁신 지원</li> <li>• [M432] 금융지원 및 보조금에 대한 중소기업 접근성 강화</li> <li>• [M468] 혁신생태계 주체들간 교류 및 민-관 협력 등 오픈이노베이션 촉진</li> <li>• [M478] 브라질 혁신기업가 생태계 주체들의 국제적 활동 촉진</li> <li>• [M486] 혁신환경 지원 사업의 이행 및 개선</li> <li>• [M667] 민간 네트워크 5G 도입을 통한 농업 및 제조업, 도시, 보건 인프라 혁신</li> <li>• [M684]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위한 전략행동 이행 지원 (특히, 기존 제도개선 및 신기술 적용제도 도출, 사이버보안 역량의 강화·혁신 등)</li> <li>• [M693] 혁신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한 Lei 11,196/2005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li> <li>• [M850] 보안 및 프라이버시, 투명성 확보로 데이터 중심 혁신 촉진</li> <li>• [M862] 혁신적 제품·서비스·공정에 AI 적용 확대</li> <li>• [M937] 기술발주 등 혁신공법 정부구매 촉진·권고</li> <li>• [M965]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li> </ul>
---------------	---

### 5-3. 전략분야별 세부내용

#### 1) 기술지식기반 구축

① [B101] 경제전략적 영역의 기술혁신 촉진(총 24개과제) : COVID-19 백신개발연구, 항공우주기술혁신, 수소에너지, 전략광물 등 국가 전략적 영역의 주요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3R11]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 협동 프로젝트, 바이러스 샘플 관리 고도화 및 바이러스 변이 연구 등	6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3T84] Alcantra 우주센터 통합 발전계획 수립·이행	5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2A76] 우주 접근과 이용을 위해 미션 중심의 프	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로그래(Programa Orientado a Missões)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기술 혁신 및 발전 촉진 전략 수행		
[5B97]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해 미션 중심의 프로그램(Programa Orientado a Missões)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기술 혁신 및 발전 촉진 전략 수행	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국방부
[4J21] 수소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연구시설 및 기업 지원, 실증사업 실시	1.5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2K90] 교통·운송 분야 바이오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를 위해 기술개발 및 혁신, 사업화 지원	0.6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9R76] 장애·난치병 기술 관련 공공연구소에 대한 투자	0.6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8C11] 바이오매스 전환 공정 효율성 증진 (특히, 농산업 밸류체 발생 폐기물)	0.5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8T19] 농업기반 산업 신기술 개발 및 혁신,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 지원	0.3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농축산식품부
[8W22] 전략광물 생산체인의 기술개발 및 혁신, 사업화 지원	0.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8G43]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활용영역 확대 및 생산공정 효율성 증대	0.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9Q12] 영구자석 내 희토류원소 생산·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위한 인력양성, 현장교육 등	0.15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7S18] 브라질 국내 바이오메스 관련 물 문제 대응 기술개발 및 혁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동형 네트워크 형태의 분과별 기술센터 운영	0.15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2D74] 전략분야 공공정책 틀 점검·개편 (우주활동 일반법, 국가우주정책, 국가행정정책 등)	0.0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7L31] 정규 R&D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개편	-	과학기술혁신부

이외에, 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략분야 전문센터 운영(EMBRAPII; Empresa Brasileira de Pesquisa e Inovação Industrial), 보건·생명과학 분야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 수립(과학기술혁신부), 녹색기술진흥(EMBRAPII), 해상풍력발전 분야 인력양성 및 실험·실증지원(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중소기업에 대한 비철금속 제련 기술 알선 및 이전(과학기술혁신부, 광업에너지부) 등이 있다.

② [B167] 혁신생태계 내 영역간 파급력을 갖는 기술개발 촉진(총 4개

과제) : 광학·나노·신소재 등 분야에서의 연구기관-기업 간 교류·협력 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3Z48] 광학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연교류 증대	0.6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8X19] 나노-신소재 분야 신사업발굴·혁신 플랫폼 구축(기술혁신: 연구기관+민간기업, 신사업: 연구기관 내 스타트업)	0.6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7R65] 나노기술 기술인프라 및 시험연구 네트워크 창출·개발·개편·확산을 위한 공적 회의체 마련	0.4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4T22] 브라질 디지털혁신전략(Estratégia Brasileira de Inovação Digital) 및 사물인터넷 추진계획(Plano de IoT) 회의체 업무 지원	-	과학기술혁신부

③ [B188] R&D인프라 및 혁신환경의 지속적 개선·관리(총 7개 과제) : 기존 과학기술 인프라(장비 등)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4U94]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투자·관리 및 활용 계획 마련 (민간사업과의 협력 및 지역경제 수요 대응에 중점)	4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6T83]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공동활용 사업 추진	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8799] 각종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국가연구인프라플랫폼(PNIPE; Plataforma Nacional de Infraestrutura de Pesquisa) 구축	0.02억헤알	과학기술혁신부 FINEP
[4493]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망(Redes de Inteligência Artificial e de Transformação Digital)을 통한 Embrapii 지점간 인프라 공유	-	Embrapii
[8025] 임상실험 데이터 분석·관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보건부

이밖에, 국방분야 R&D 수행 연구기관 부설 시험연구소의 국내외 인증 추진(국방부), 군(軍) 연구기관 보유 인프라·지적자본에 대한 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공동이용 촉진(국방부)이 있다.

④ [B633] 기술혁신센터(NIT)의 산학협력 기능 강화(총 4개과제) : 보건 의료 영역의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1069] 보건부(Ministério da Saúde) 산하 기술혁신센터 설립·활성화	-	보건부
[3465] 보건부(Ministério da Saúde) 소관 혁신정책 논의 (주체간 협업,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이전, 신사업발굴, 시험장비 공동이용, 기술용역 제공, R&D 인센티브 제공 등)	-	보건부
[4066] 보건부(Ministério da Saúde) 소관 혁신정책 수립 (지식·제품·서비스 창출, 기술이전 등을 근간으로 하는 R&D정책방향 수립과 국가공공의료서비스(SUS; Sistema Único de Saúde)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	보건부

이외에, 군(軍) 소속 기술혁신센터의 국가과학기술네트워크 연계·포함 지원(국방부)가 있다.

⑤ [B729] 군-산-연 협력기반 구축 위한 국방분야 혁신 지원시스템 마련 (총 8개과제) : 국방분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업 및 파트너십 구성·운영에 관한 활로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7903] Embrapii-국방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기술 개발	1억헤알	Embrapii
[5048] 보건 분야 혁신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업-연구기관(ICT)-민간·공공 시험연구소 간 협업 강화 (공공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의료산업복합체발전프로그램(PROCIS; Programa para o Desenvolvimento do Complexo Industrial da Saúde)을 보건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정책과 통합 운영하고, 해당 법적체계를 재정비하여 운영효율성을 개선하며, 동 분야 공공기업 및 생산인프라를 고도화)	-	보건부

이외에, 국방부 소관 기술개발혁신 주체들간 협업체계 구성·확대(국방부), 국방분야 과학기술혁신부-국방부간 네트워크 강화(Embrapii), 산-학 기술협력협정 활성화(국방부), 국방분야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타 지원기관과의 협력(BNDES), 사이버네틱 챌린지 프로젝트 창설(과학기술혁신부), 3중나선모델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모델로 한 국방부 소관 혁신사업 추진(국방부) 등이 있다.

## 2) 혁신문화 확산

① [C034]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국제적 파트너십 및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총 5개과제): 각 분야별 해외협력을 통한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1281] 국제적 차원의 R&D추진을 목표로 Embrapii의 국제 파트너십 강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과 파트너십 구축되어 있으며, 수요에 따라 추가 파트너십 구축.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웹사이트에 공개 예정)	5.5백만헤알	Embrapii
[7983] 국가유전체정밀의학 지원사업인 Genoma Brasil을 통해정밀의학 및 개인 맞춤형 의료 분야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SUS의 수요 대응 및 필수 의료용품 생산분야 취약성 감소를 위한 기술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중사자에 대한 기술훈련 촉진)	0.1백만헤알	보건부
[1288] 현재 여러 국가와 이행중인 국방분야 양자간 실무그룹 내 과학기술혁신 분야 논의테이블 설치·유지	-	국방부
[9213] 국제무대에서 다자간 협의체를 비롯하여 양자간 합동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정 체결 적극 참여	-	외교부

이외에 Finep-노르웨이연구협의회 간 3차 공개협의회 개최(Finep)가 있다.

② [C036] 혁신 필수영역에 인적자원 유치 프로그램 등 마련(총 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2599] 공공기관 간부급 임용 시 전문성 검증 실시	2.5백만헤알	재무부

이밖에, 교육훈련4.0 프로그램 실시(Embrapii)가 있다.

③ [C039]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혁신 문화 확산 지원(총 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7315] 공공부문 이슈의 혁신적 해결(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한)을 위한 정부기관 지원	0.46백만헤알	재무부
[2968] 공공부문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위한 시범적 혁신사업 추진 (행동과학 및 시스템디자인을 활용한 공무원 교육 등)	0.2백만헤알	재무부
[9891] 중남미 최대규모의 연간 혁신주간 신설	-	재무부

④ [C040] 혁신 현장과 관련 직업군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지방 혁신생태계 조성(총 7개과제) : 주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제품 또는 농촌지역의 농업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2666] 바이오경제 생산망 프로그램 지원(브라질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이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6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9834] 파라나 Londrina 지역의 농업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기술개발 혁신 추진 시험연구소 건립, 식품분야 지역내 협업체계(APL; Arranjo Produtivo Local) 구축, 기술혁신거점(Polo de Inovação Tecnológica)과의 연계사업 활성화 등)	0.35백만헤알	농축산식품부
[3608] 지역적 농축산 혁신생태계 조성·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지역적 다양성 보존과 특성 강화를 통해 혁신우호적 환경 조성)	0.23백만헤알	농축산식품부
[4469] 농축산식품부-미나스제라이스 주 간 협업 지원 (Cerrado Mineiro 지역 농축산 기업의 경쟁	0.072백만헤알	농축산식품부



력 강화 및 기술개발혁신 사업 추진을 통한 신사업 발굴 등)		
[8030] 상파울루 주 Vale do Piracicaba 지역 농업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 상파울루 지역 Campinas, Jaguariúna, Piracicaba-São, Carlos-Ribeirão Preto 로 이어지는 기술거점 사슬의 농업분야 기술혁신 거점 구축 및 디지털·바이오 전환	0.072백만헤알	농축산식품부

이밖에, 광물질재처리시설(rem mineralizer) 생산기술 개발·혁신 지원 및 농업분야 응용 지원(광업에너지부), 미나스제라이스 주 Vale do Jequitinhonha 지역 리튬 생산체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광업에너지부)이 있다.

⑤ [C185] 연구기관(ICT), 지역적·국가적 과업, 관련 직업군들간 전략적 연계 : 단일과제로 연구기관(ICT) 및 기술혁신센터(NIT)의 혁신정책수립 지침 관련 홍보 및 인식공유 행사 추진(과학기술혁신부)이 있다.

⑥ [C283]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여러분야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확산, 주요 혁신주체 발굴 및 지원구조 구축) (총 9개 과제) :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등 주요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0674] 과학기술혁신부-Embrapii간 디지털전환 혁신 네트워크 강화 (21개 Embrapii 지부에 해당업무 부여)	50백만헤알	Embrapii
[6626] 과학기술혁신부-Embrapii간 그래핀(graphene) 혁신 네트워크 강화 (15개 Embrapii 지부에 해당업무 부여)	50백만헤알	Embrapii
[8012] 과학기술혁신부-Embrapii간 AI 혁신 네트워크 강화 (19개 Embrapii 지부에 해당업무 부여)	50백만헤알	Embrapii
[5252] 국가과학기술혁신기관(INCT; Institutos Nacionais de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프로그램 지원 (INCT 기관 협의회 <과학기술혁신부, CNPq, CAPES, 각 주 연구진흥기관들(FAPs)로 구성>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 논의·실행)	7.5백만헤알	CNPq

[9527] 기업-연구기관(ICT)-정부간 상호교류 증진을 통한 전략분야 혁신 역량 강화	1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2649] 농축산식품부-CPqD (원거리통신연구개발센터)간 파트너십 지원 (농촌지역 중소규모 생산자에 중점을 둔 4G, 5G, 사물인터넷 설비 구축·운영 운영타당성 평가 및 행정적·제도적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농축산업에 즉시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등)	-	농축산식품부
[9418] 바이오 농업원료 지원 (각종 병충해 제어 시스템의 다양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제품생산체인의 다양한 주체와 관련 기업, 하계 등 지원)	-	농축산식품부

이밖에, 하드웨어 전문센터 설립(과학기술혁신부), 2030 전력모빌리티 경로네트워크(Rede Rota 2030 de Mobilidade elétrica) 및 미래수요기반 신 네트워크 구축(재무부, 개발산업통상부)이 있다.

⑦ [C442] Lei 13.243/2016에서 규정된 수단·체계 등 이행·확산·활용의 지속적 지원 및 평가(총 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0457] Lei 13.243/2016에서 규정된 수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 (위임법령을 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사항은 물론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입법)	-	과학기술혁신부
[8644] 국방혁신정책 및 전략 수립	-	국방부

이밖에, Lei 13.243/2016 규정된 수단의 인식·적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실시(과학기술혁신부)가 있다.

⑧ [C466] 국제적 선도·우위 분야의 국제적 확산(단일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1133] 브라질 혁신성과 홍보 외교 (국제무대에서 기존 브라질의 전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첨단분야 지식·기술 생산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1.8백만헤알	외교부

⑨ [C488] 잠재 혁신 아이디어의 창출·개발·검증을 위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및 강화(총 6개과제) :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7857] 제2회 혁신여성 지원사업 실시 (여성기업인이 이끄는 스타트업 지원)	1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Finep

이밖에, 꽃가루매개원에 관한 연구프로그램(과학기술혁신부), 에너지 효율 주거형태 시범건립 사업 추진 지원(지역발전부), CNI·Sebrae·Finep 혁신시장 지원(Finep), Finep 스타트업 프로그램 개최·운영(Finep), Finep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최·운영(Finep)이 있다.

⑩ [C573] 혁신관리 수단의 중요성 증진, 혁신활동 위험 감소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ICT) 내 혁신관리시스템 도입 유도(총 2개과제) : Embrapii 성숙단계모델 실시(Embrapii), 산업현장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NAGI Digital 사업 추진(과학기술혁신부, Finep) 등 국내 주요 연구 및 기술개발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혁신관리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⑪ [C647]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연구기관(ICT) 보유 기술 이전 촉진(총 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0915] Embrapii Day 추진 (연구기관(ICT)이 보유하거나 추진중인 기술 및 프로젝트를 기업과 함께 논의하는 워크샵)	0.01백만헤알	Embrapii
[2838] 국방부 소관 지적재산권 정책 재편	-	국방부

⑫ [C794] 지원기관의 기관평가·연구자평가 기준·방식을 연구결과 발표 외에 기업파트너십 지표를 기반으로 개선(단일과제): Embrapii 지부 등에 평가·모니터링 모델 적용(Embrapii)

⑬ [C863] 국내 연구개발혁신활동에 관한 데이터·연구·제도·지침 등의 통합 플랫폼 구축(총 10개과제) : 관련 지식 및 경험체계를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4982] 국방부와 각급 군부대 및 과학기술혁신부간 상호운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처리·저장·분석하여 전략적·정치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생산)	765천헤알	국방부
[2114] 식량 주권·안보에 관한 지식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네트워크와 데이터뱅크를 통합하여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지식을 재창출하고 공공정책결정에 활용)	750천헤알	과학기술혁신부
[8292] 국가혁신정책(Política Nacional de Inovação) 및 부처간회의(Câmara de Inovação)를 위한 웹 포털 구축 (관련 정책정보, 법적·제도적 정보 등 공유·확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250천헤알	과학기술혁신부
[8366] Lei 13.243/2016에서 규정된 여러 지원수단의 개념과 연관규정, 적용례와 효과분석 연구 정보 등 제공하는 사이트 신설	250천헤알	과학기술혁신부
[0129] 국내 연구기관(ICT) 보유 지적재산권 정책을 개방형 정보 형태로 수립 (연구기관이 과학기술혁신부에 제출하는 지적재산권 정책 정보를 정형화된 양식 형태로 공개 추진)	100천헤알	과학기술혁신부
[4737] 농기계 및 농업장비 등록·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브라질 농축산업연맹<Confederação da Agricultura e Pecuária do Brasil>이 개발한 무료 이용 시스템으로 브라질 국내 농기계 시장의 보안·신뢰 증대)	-	농축산식품부
[4592] 국내 스타트업 정책 컨트롤 정보포털 Startup Point 유지·개선 (2020년 국가스타트업지원위원회<Comitê Nacional de Apoio às Startups>의 지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총 35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과학기술혁신부
[1851] 농축산식품부-국가우주국(Agência Espacial Brasileira)간 협업을 통해 농축산산업에 공간기술 적용 추진	-	농축산식품부

이밖에, 국가농축산관측소(Observatório da Agropecuária Brasileira)의 세부영역 패널 개발을 통한 확대(농축산식품부), Finep 소관 혁신사업 허브(HUB de Inovação Finep) 개발(Finep) 등이 있다.

### 3) 교육시스템 고도화

① [E194]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 및 학생 중심의 교육방법론 함양 위한 지속적인 각급 교원 훈련(총 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0881] 온라인 수강 형태의 360시간 분량의 대학원 교육 제공 (연방·주·지방의 기초교육 교원들로 하여금 각 목표세대별 디지털 기반의 신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는 역량 함양)	2백만헤알	교육부
[4644] 연방직업과학기술네트워크(Rede Federal de Educação Profissional, Científica e Tecnológica)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직업기술전문가에 대한 지속적 교육훈련 강화 전략 수립·시행	1.3백만헤알	교육부

② [E260] 기업현장에 파급력이 큰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교육 중심으로 학업 및 연구 장학금 제공 확대(총 9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7703] 과학연구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과학기술연구기관(ICT) 및 고급교육기관(IES: Instituições de Ensino Superior)과 함께 과학연구 정책 집행)	125백만헤알	CNPq
[8724] 기술혁신 분야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29.9백만헤알	CNPq
[6041] 혁신분야 석박사 프로그램 관리·집행 능력이 있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연구기관(ICT)이 제안한 각종 과제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21.2백만헤알	CNPq

[9659] 국방분야 전략영역 기술확보역량 증진 프로그램 시행 (핵, 사이버, 우주, 바이오안보 등 국방분야 전략영역과 군대 동원 및 운영체계와 연관된 기타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분야 인적자원 교육을 실시)	8.5백만해알	국방부
[0287] 국방분야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시행 (국방분야 석박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동 분야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6.7백만해알	국방부
[7922] 국방전략영역 해외연구 프로그램 시행 (국방분야 전략 영역(사이버네틱스, 핵, 우주, 바이오안전)에서의 교육·연구·응용 프로젝트 등)	4.2백만해알	국방부
[9800] 과학연구 및 석사교육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과학분야 석사과정을 개시하는 학부과정 졸업자 또는 브라질 국내 각종 수학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3.1백만해알	CNPq
[1805] 국방분야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시행 (국방분야 고급인력 양성, 과학기술 분야 연구 추진 및 관련 교육 시행 프로젝트에서의 민-군 협력 촉진)	2.2백만해알	국방부
[2267] CNPq-국방부-공공안전부간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공안전부 소관 예산 및 재정자원을 CNPq에 배정하여 각 기관의 세부 관심분야에 대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인적자원 교육 및 양성 등을 추진	1백만해알	국방부

③ [E487] 국내 및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등 기술분야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총 3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3578] 학계 및 민간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노동시장에 고급인력의 유입과 유지를 목표로 학부·대학원 교육의 양적·질적 증대를 위한 고급교육 기관(IES), 연구센터,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5531] 국제적 차원의 양자-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창출을 통한 대학간 협력, 공동연구, 학부 및 대학원 차원의 학자금 지원	-	교육부

[5619] 상급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간 인정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약 추진 (브라질과 외국가간 상급 교육과정 학위에 대한 교차인정을 위한 양해각서 또는 양자-다자간 협약 추진)	-	교육부
--	---	-----

④ [E500] 기초교육에서 비롯되는 혁신능력 개발 및 정밀과학, 농생명·기술·공학에 대한 관심 유도(총 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1082] 중급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학자금 프로그램 지원 (연구기관(ICT) 및 상급교육기관(IES)의 참여하는 공립학교 과학교육 진흥 프로그램)	6,7백만헤알	CNPq
[3790] 연방과학기술직업교육네트워크에 프로토타입 실험실(시제품 제작소) 설립 지원 (1단계로 2020년까지 전국 113개 제작소 설립, 2단계로 2021년까지 60개 제작소 설립)	-	교육부
[6219] 정밀공학 등 분야에서의 여성 인재 지원 프로그램 실시 (브라질 국내 정밀공학, 공학, 컴퓨터공학 분야 여성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동 분야 여학생들의 진출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공립학교의 기초과학교육 지원)	9백만헤알	CNPq

⑤ [E528] 학생들의 혁신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초교육 수준부터 개발(총 1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2651] 온라인 교육 혁신 프로그램 확대·강화 (초고속 인터넷 접근의 보편화 지원 및 연방·주 등 각급 기관 및 학교,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공립 학교 및 기초교육 현장에서의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선결적 조건 확보)	220백만헤알	교육부
[1968] 직업기술교육 분야 혁신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연방직업과학기술교육 네트워크 소속 기관들의 각종 제안 및 관할기관의 논의·결정을 통해 채택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젝트 시행 지원)	16.5백만헤알	교육부

[0527] 국공립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원들에 대한 혁신 관련 지속적 교육 제공 프로그램 실시 (신규 장비 및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실험 등을 통한 교육적 전달 방식의 혁신 역량 개선)	15백만헤알	교육부
[2725] 초중고 학생 기술교육 실시 확대 (연방-주 기관간 협력을 통한 기술교육 프로젝트 지원. 기술교육 프로젝트는 직업현장에 적용가능한 신 디지털기술 관련 역량 교육 포함. 기술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앱 개발, 가상-증강현실, 로봇공학적 솔루션 시제품 제작 등)	14.7백만헤알	교육부
[9957] 국공립학교 수학올림피아드 지원 프로그램 개시 (수학올림피아드 입상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7.2백만헤알	CNPq
[4334] 보조공학 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연방 직업과학기술교육 네트워크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	5백만헤알	교육부
[8436] 연방직업과학기술네트워크의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솔루션 개발	1백만헤알	교육부
[8708] 연방직업기술교육 네트워크 기관들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분위기 조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해당 기관들의 혁신·기업가정신 진단·훈련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0.6백만헤알	교육부
[4287] 연방대학 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브라질 국공립 대학들이 각종 과학기술 혁신 관련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협력체계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 조성)	-	교육부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주간(Semana Nacional da Ciência e Tecnologia) 및 정밀·농생명·기술·공학 분야 관련 대회(중고생 및 대학생의 해당 시제품 경연 등)를 개최하는 기타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 유도(교육부), Finep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지원 분야 시행(Finep), 보조공학(Tecnologias Assistivas) 관련 공개채용 실시(Finep, 과학기술혁신부, 보건부) 등이 있다.

#### ⑥ [E619] 기초교육부터 기업가적 실습 촉진(총 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5661] 초등교육과정 Brasil na Escola 프로그램에 혁신 관련 분야 추가	10.8백만헤알	교육부
[8146] 연방직업과학기술교육 네트워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교육 4.0 워크샵 개설·운영	4.6백만헤알	교육부
[5024] 원거리 온라인 교육을 연방 공립 고등교육 기관까지 확대 (고등교육과정의 접근성 확대 및 학생이탈 방지를 위한 차원)	3백만헤알	교육부

⑦ [E623] 학부 및 대학원 커리큘럼에 실용적·학제적 접근법 도입 (단일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1151] 연방고등교육기관에 Embrapii 지부 확대 및 Programa Capacitação 4.0 실시 (우선지원대상 영역인 농업, 농식품산업,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기에너지 발전·송전·배전, 화학, 바이오이코노미, 전기 모바일 등 활용한 물류, 지속가능 기술 등 분야를 위주로 지원공고를 통해 Embrapii 지부 신설)	-	교육부

⑧ [E668] 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교육기관, 시민사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교시장과 사회의 수요에 맞춘 교육컨텐츠 개발(총 5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7602] 보건부 실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일반직, 석·박사 및 전문직 대상>	765억헤알	보건부
[0445] 직업기술센터(CVT: Centros Vocacionais Tecnológicos) 운영 지원 (과학 및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 약 60여개소가 과학기술혁신부 감독하에 운영중)	1.3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0279] "직업모니터"(Monitor de Profissões) 플랫폼 개발 (정부·기업·학교 등 여러 사용자에게 맞춤형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화하고, 디지털경제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직업 정보를 확보하여 개별 직업마다 특성 등을 담은 맵 제작)	0.7백만헤알	ABDI

[1549] 연방급 각 기관에 Embrapii 혁신 허브의 개설편과 운영 지원 (2024년까지 연방직업기술교육 네트워크 기관에 Embrapii 혁신허브 20개소 설치)	-	교육부
---	---	-----

이밖에,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연료 분야 인적자원양성 프로그램 실시(Finep)이 있다.

⑨ [E700] 고급인재 및 해외 연구자 유치 사업 개발(총 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7571] 보건부 직무과정 핵심대체인력 육성 (보건부 직무과정에 혁신역량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 전략분야 특정 업무영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50백만헤알	보건부
[2476] 해외의 학생 및 연구자를 브라질 국내 상급교육기관(IES)에 유치하는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이밖에,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의 창출·통합·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보건부)이 있다.

⑩ [E788] 유형별·수준별 교육과정에 디지털문화 개발 촉진(총 4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9428] 컴퓨터 모델링 박사과정 개설 (보건부의 보건전문인력 개발 계획에 의거, "공공정책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컴퓨터 모델링 관련 전문역량 개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또한칭스 대학(Universidade de Tocantins)과 협력하여 관련 박사과정 교육 실시	100억헤알	보건부
[0903] 사물인터넷 및 교육 5.0 분야 연구·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연구자·교원, 학부 및 대학원생, 2차교육 재학생, 관련 분야 기관 담당자, 기업, 일반시민 등 광범위한 참여하에 시행되는 "시민 5.0(cidadão 5.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1.2백만헤알	CNPq
[5397] 컴퓨팅 전공 학부생의 학부과정 마감활동 AI 분야 장학금 지원 사업 촉진 (컴퓨팅 전공 학	0.3백만헤알	CNPq

부생의 학부과정 마감활동으로서의 AI분야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AI분야에 내재한 개념 및 기술 집약적 컴퓨팅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것)		
--	--	--

이밖에, 교사 및 교직원 4천명에 대해 40시간의 원거리 교육을 통해 초등교육과정에 컴퓨터적 사고를 함양하는 전문역량 개발(과학기술혁신부)이 있다.

① [E940] 기업현장에 대한 접근성 및 경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활용 촉진(단일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1201]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실시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각 사업장의 재개 지원 및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일부 지역에서 개시한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	7백만헤알	교육부

#### 4)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① [F015] Lei 10.973/2004 제19조에 규정된 지원수단(보조금, 대출, 출자, 기술보너스, 기술발주, 세제혜택, 학자금지원, 정부구매, 직간접 투자 등) 활용 촉진 (총 6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9962] Lei 10.973/2004 제19조에 규정된 지원수단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무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0.36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0222] 혁신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채권발행 및 펀드 투자 유치 등 활용 촉진 (투자프로젝트의 승인·기획·모니터링 과정 및 선결조건 모델링)	-	과학기술혁신부
[8024] 기술발주 규정 개선 (해당 규정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혁신부가 혁신 인센티브 부여)	-	과학기술혁신부
[8177] 보건 분야 국가혁신정책 수립 (관련 규정	-	보건부

에 따르면 보건분야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중요한 것은 관련 기술을 양산하는 보건분야 산업군(CIS; Complexo Industrial da Saúde) 형성임.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	--	--

이밖에, 혁신기본법(Marco Legal de Inovação)에 따른 지원수단의 활용범에 관한 안내서 발간 및 과학기술혁신부 사이트에 게재(과학기술혁신부), 보건분야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보건부)이 있다.

② [F113] 기술적 고위험 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금(무상지원금) 우선 지원(총 6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7459] BNDES 소관 기술기금(Fundo Tecnológico)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및 보건 분야 혁신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추진 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권장)	25백만헤알	BNDES
[6557] 원거리통신연구개발센터재단(Fundação CPqD; Centro de Pesquisa e Desenvolvimento em Telecomunicações) 및 기타 연구기관(ICT)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한 해당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재원은 원거리통신기술개발기금(Funttel; Fundo para o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das Telecomunicações) 활용)	13.5백만헤알	통신부
[7196] 프로젝트 분석 및 자원조달에 적용할 기술성숙도 표준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기반하여 설계 (기술성숙도 측정 툴을 기술확보수준(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라 개발하고 이를 모든 분야에 적용. 국가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취급·분류 기준으로 활용)	-	과학기술혁신부
[3116] 과학기술혁신부 웹사이트를 통해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조달수단(Portfolio de Produtos Financeiros) 사용 및 접근 개선.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 기타 기관 소관 자원조달 방법 안내 등	-	과학기술혁신부

이밖에, 지속가능분야,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 국방 등의 분야에서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기술기금(Fundo Tecnológico)을 활용하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 협업 지원(BNDES), 국방분야 혁신 프로젝트 실행 시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과학기술혁신부-국방부간 합동부령 조항의 공동 집행·관리(국방부)가 있다.

③ [F162] 투자지속성 유지 위한 재정·금융·협업 지원체계 개선(총 14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2853] 원거리통신 영역의 혁신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출연금(비환수) 지원 (원거리통신기술개발기금(Funttel; Fundo para o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das Telecomunicações)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개발 지원하는 차원)	368.6백만헤알	통신부
[7156] BNDES의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및 학계와의 협업으로 국방분야 프로젝트 추진 (민간 군수업체 및 학계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환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국방부-BNDES간 의향서에 따른 세부 조치 이행)	20백만헤알	국방부
[6379]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수단 (Portfolio de Produtos Financeiros) 검색·활용을 위한 자동화 및 업데이트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코드화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객관적 근거와 결과에 의거한 정책결정 문화 확산)	0.25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0750]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재원조달 방안 사례 연구 (해외의 선례 중 브라질의 법체계와 여건상 적용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부의 현 재원조달 체계에 대한 진단 및 대안적 전략 마련)	-	과학기술혁신부
[2761] 2021-2022 2개년 원거리통신기술개발기금 (Funttel)의 규정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 수립	-	통신부
[5084] 농축산부-Finep-과학기술혁신부 간 협력 강화 (농업 관련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기업 및 연구기관(ICT)의 연구개발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Finep 소관 유무상 재원을 활용하여 각종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투자 증진 유도)	-	과학기술혁신부, Finep, 농축산부
[5099] 각종 기업지원기관 및 민영·국영기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업을 통한 국방분야 기술개발 지원 (향후 예산 지원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목표로 한 협약 체결)	-	국방부

[9386] 해외 주재 브라질 기관 및 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혁신 분야 투자유치 및 관련 공정책상 협력체계 강화	-	과학기술혁신부
[9791]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회 및 비영리단체 등이 기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과학기술혁신부

이밖에, 담보제공 우대이율로 조달한 자금으로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통한 보증체계 구축(과학기술혁신부), 세제혜택을 통한 국제 R&D센터 설립 투자유치 규정 개선(과학기술혁신부), 혁신 준수품 개발을 위한 전략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 창출(국방부), 연구기관(ICT)-민간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한 공론 활성화(Finep), Programa Finep 2030 차원의 세부 프로젝트 지원(Finep) 등이 있다.

④ [F213]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민-관 협업, 민-관 협력형 RD&I 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총 6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3085] Embrapii의 무상재원을 통한 연구기관-기업간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협력 지원	500백만헤알	EMBRAPII
[7972]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혁신솔루션 개발을 위해 리우 주 산업연맹(Firjan) 산하 국가산업연수원(Senai)과 협업으로 현장시험장 설치 (해당 분야 스타트업 등 기술기반 기업들과의 소통 및 시장출시용 제품 개발 지원)	15백만헤알	광업에너지부
[2398] Embrapii와 기술협력약정을 통해 국방분야 프로젝트 지원 추진	-	국방부
[8783] 보건 분야 생산적개발협력(PDP: Parcerias de Desenvolvimento Produtivo) 강화 (PDP는 보건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의 일환으로 전략적 의료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 공공 의료서비스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의 취약성 완화, 국가 의료제품 제조기술 의존도 경감 등을 추진)	-	보건부
[8844] 기업과 연구기관(ICT)간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 규정 재검토 (기업이 자가재원을 기존 프로젝트에 활용 시 세제혜택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	-	과학기술혁신부

[9322]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 개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행동 실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 과정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공동참여를 통해 혼합형 재원조달 시스템 활용 강화)	-	과학기술혁신부
---	---	---------

⑤ [F369] 연구기관(ICT) 보유 사업화 유망 기술에 관한 전략정보를 활용하는 혁신 네트워크 형성 촉진(총 6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0151] 재정타당성네트워크(REVIF: Rede de Viabilização Financeira) 개설 (비예산적 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따라 분류·나열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재정타당성 네트워크를 통합)	-	과학기술혁신부
[2357] 해외 주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등 정보보고서 작성 (여러 분야의 각종 정보와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기술개발혁신 분야 재원조달 전략 수립에 참고)	-	과학기술혁신부
[2365] 농업분야 혁신과제의 통합·조정을 위한 가상허브(Hub Virtual) 구성 (가상허브는 각종 농업분야 혁신구상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단계에는 인터넷 베이스 플랫폼으로 구성하되 ①브라질 농업생태계 관련 정보 공유 ②농축산부 정책계획 홍보 ③국내 혁신사업 추진현황 공개 ④ 농업기술편람(Radar Agtech)의 사용자 편의적 출간 ⑤지원사업 공고 등을 포함)	-	농축산부
[7894] 국제투자기회에 대한 시장정보보고서 출간·공표 (각 분야 정보 및 주요 주체, 협력수단 및 투자방법 등에 관하여 해외시장 분석에 기반한 정기적 정보보고서 출간. 향후 과학기술혁신 분야 재원조달 계획 수립에 참고)	-	과학기술혁신부
[7989] 각 군단(Forças Singulares) 산하 연구기관(ICT)의 중점 분야 및 역량에 대한 현황 조사	-	국방부
[9247] 각 군단(Forças Singulares) 산하 과학기술혁신 실험소 현황 조사	-	국방부

⑥ [F575]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미션 중심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구조 마련(총 9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9345] 제로에너지건축물(Near Zero Energy Buildings) 관련 기술 혁신 촉진 (전략지역에 제로 에너지건축물 설립 공론화. 연구기관·기술자·산업계·학계 등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장소에 동 건축물 설립, 브라질 기후여건에 적합한 자체기술 및 최적 자재 발굴·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	4백만헤알	광업에너지부
[8784] 시장참여자를 위한 혁신프로젝트 포털 개발·구축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기업 등 시장참여자와 연구기관간 매칭을 위한 포털 개설·운영)	0.25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0005] 기존 프로젝트관리네트워크(PMO; Rede de Escritórios de Projetos)를 재정타당성네트워크(REVIF)와 통합 (양 네트워크를 연계·통합하여 프로젝트 구상·구축 단계와 투자유치 및 비예산재원 확보 단계간 연계 강화)	-	과학기술혁신부
[1004] 국방분야 과학기술혁신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실행영역 구축 (국방분야 과학기술혁신 전문기관 설립 논의 개시. 동 전문기관은 향후 주로 기술발주에 의해 과업 추진)	-	국방부
[1749]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성과물 양도 추진 계획 수립 (연구개발 성과의 전 사회적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되 부작용의 최소화, 관련 인력의 연계 및 자원배분 및 추진시점의 최적화 등을 고려)	-	과학기술혁신부
[4986] 소규모 자영농 지원사업(Plano Safra)에 따른 농업혁신 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재원운영 체계 개선 (농축산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간 협업 프로젝트 출범 등을 통해 동 분야 투자유치 도모)	-	농축산부
[6345] CNPq의 기존 운영 플랫폼을 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Lei 13.243/2016)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한 신규 플랫폼 구축	-	CNPq
[7904] 다양한 목적 및 영역별 기금 및 헌법상 규정된 공적기금을 연구개발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조달라인 확보 (부처간 공동 법령개정 등을 통해 위 다양한 기금의 이해관계 주체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과학기술혁신부



<p>[8234] 보건 분야 생산적개발협력(PDP)과 관련된 법 규정체계 재검토 (PDP는 보건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의 일환. 추진목표인 ①전략적 의료 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 ②공공의료서비스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의 취약성 완화, ③국가 의료제품 제조기술 의존도 경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보건임상시험소(Laboratórios Públicos Oficiais) 보유기술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개편하고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p>	-	보건부
---	---	-----

5) 혁신제품시장 활성화

① [M009] 스타트업-투자자간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단일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p>[6296] 창업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체계 개선 (스타트업 및 브라질 혁신생태계 기타 구성 주체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p>	-	과학기술혁신부

② [M285] 연구기관(ICT)의 혁신환경이 스타트업·시장·생산현장 간 교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총 5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p>[7129] 초기아이디어 지원 사업 2회차(Programa Centelha 2) 실시 (혁신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멘토링 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시행)</p>	90백만헤알	과학기술혁신부, Finep, CNPq
<p>[2046] 그래핀(Graphene) 분야 기술기반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한 공개논의 개시 (동 분야 기술기반 창업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응용연구 제안, 기술 혁신 추진)</p>	1백만헤알	CNPq
<p>[1935] 농업기술편람(Radar Agtech) 프로그램 추진 (농업분야 스타트업에 초점을 둔 혁신생태계에 대</p>	30천헤알	농축산부

한 연간조사를 통해 각 지역·영역별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	--	--

이밖에, Inovativa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방안을 활용하여 Powered by Inovativa 체제에서 매칭된 파트너에 의한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지원(구. 경제부), 보건분야 스타트업 현황자료 배포(보건부) 등이 있다.

③ [M335]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법·기술·신지식의 도입을 통한 기업 생산공정 혁신 지원(총 14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2606] 브라질mais(Brasil Mais) 프로그램 1단계 시행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기술지원으로 생산·경영기법 개선 유도. 동 프로그램은 경영·생산 방식의 개선 및 디지털전환을 유도하는 방법론의 채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170백만헤알	ABDI
[1137] 지역혁신주체(ALI; Agentes Locais de Inovação) 프로젝트 지원 (CNPq와 Sebrae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Sebrae가 선정한 후보자, 후보그룹 등에게 CNPq가 학자금을 지원	53백만헤알	CNPq
[3436] 혁신인력(Inova Talentos)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혁신 활성화를 위한 학부졸업생 및 석박사 전문인력의 채용·교육·배치 지원)	14.2백만헤알	CNPq
[5231] Digital BR 프로그램 실시 (경제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정책·사업·프로그램 선정·추진. 북동부지역 소재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는 물론 공공정책 결정자에게 정책수단 및 재원을 지원)	14백만헤알	ABDI
[1127] "WEF C4IR: 4차산업혁명센터" 프로그램 시행 (C4IR Brasil은 세계경제포럼(WEF)과 연계된 행사로서 윤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발전과 기술활용이 가능한 공공정책과 파트너십의 형성을 목표로 함)	13백만헤알	ABDI
[7368] 브라질mais(Brasil Mais) 프로그램 2-3단계 시행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통해 디지털 및 Economia 4.0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여 기술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7백만헤알	ABDI

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향후 더욱 큰 틀에서 동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Sebrae 및 국가산업연수원(Senai)로 이관 예정)		
[1710] 디지털여행(Jornada Digital) 프로그램 시행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디지털기술을 채택하도록 지원하여 사업전략을 디지털로 연계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제공) * 브라질 기업현장의 성숙도가 낮은 요인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으로의 준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OECD에 따르면 최근 여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혜택은 잠재력 극대화에 필수적인 인적 자본 및 조직효율성에 강점이 있는 동시에 제조기술에서 앞서가는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ABDI

이밖에, 기업생산성제고 경영기법 및 기술 채택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규제도 확보 및 기존제도 개선(구. 경제부), Agro 4.0 프로그램: 농업분야 4.0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지원 공고(ABDI), BNDES Crédito Serviços 4.0 실시(BNDES), DataLabs 4.0 프로그램: 브라질 국내기술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에 초점을 둔 인터스트리 4.0 기술공정의 선도 실험센터 (ABDI), 브라질 건축공학 전문가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채택 지원(ABDI), Conect@ Cidades 프로그램 실시: 생산현장 디지털전환에 역점을 둔 브라질 자치도시권 역간 디지털인프라 및 연결성 개선 지원(ABDI), BNDES 혁신 중소기업·소상공인(BNDES MPME Inovadora) 프로그램 시행(BNDES) 등이 있다.

④ [M432] 금융지원 및 보조금에 대한 중소기업 접근성 강화(총 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9576] 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Embrapii-Sebrae간 파트너십 구축 (무상출연금 지원을 통한 두 기관의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통해 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역량 지원)	50천헤알	EMPRAPII
[2819] Lei do Bem (Lei 11.196/2005)에 따른 세제혜택 안내 비디오자료 제작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	과학기술혁신부

⑤ [M468] 혁신생태계 주체들간 교류 및 민-관 협력 등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총 13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5310] InovAtiva Hub - InovAtiva Brasil: Programa de Aceleração de Startups 시행 (무상 공공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투자자, 기업가 등 참여를 기반으로 네트워킹, 사업아이디어 전달성, 멘토링 등 세가지 활동에 중점. 프로그램 1회당 400여개 혁신 스타트업 선정. 2020년까지 1만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동 프로그램에서 발표되었고 2,300개의 스타트업이 엑셀러레이션 수혜를 받았으며 1,200개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매칭됨)	6.8백만헤알	구. 경제부
[7854]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컨테스트 개최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공공문제 해결책 탐색 유도)	0.66백만헤알	구. 경제부
[3564] BNDES Garagem 2회차분 시행 (소셜임팩트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연간 매출액 16백만헤알 이하 스타트업이 지원대상. 국가 임팩트 투자 및 기업 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vestimentos e Negócios de Impacto) 일환으로 Decreto 9.977/2019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영향과 경제적이윤을 창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	BNDES
[5632] 인큐베이팅 기업 연구인력 지원 (국가혁신환경조성프로그램(PNI: Programa Nacional de Apoio aos Ambientes Inovadores)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을 인큐베이팅 기업에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프로그램은 이들이 유망 인큐베이터 입주 기업에서 재직하면서 동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지속할 경우 기술개발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	-	과학기술혁신부
[9020] 혁신 및 벤처 지원 펀드 조성 (① [CRIATEC 3] 정보통신기술·농업·신소재·나노기술·보건 분야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 소기업 지원 펀드, ② [BRASIL VENTURE DEBT] 혁신소기업을 위한 대출펀드 ③ [PRIMATEC] 테크노파크(Parques Tecnológicos) 또는 연구기관(ICT)과 연계된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 투자펀드 ④ [FIP ANJO CAPITAL SEMENTE]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엔젤투자 매칭 펀드)	-	BNDES

이밖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보건부-Embrapii간 협력 강화(보건부), InovAtiva Academy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컨설팅 실시(구. 경제부), InovAtiva Conecta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매칭 실시(구. 경제부), InovAtiva Conecta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중견기업 매칭 실시(구. 경제부), Conecta Startup Brasil 2회차 실시(구. 경제부), InovAtiva Hub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가정신 고취 행사 개최(구. 경제부), Finep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실시(Finep), 반건조지역 수자원 공급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지원(Finep) 등이 있다.

⑥ [M478] 브라질 혁신기업 생태계 주체들의 국제적 활동 촉진(총 3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2632]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 (브라질계-외국계 기업간 매칭을 통해 국제협력형 연구개발 공동투자 모델 추진)	5.5백만헤알	EMBRAPII
[4205] 스타트업 국제화 지원을 위한 StartOut Brasil 프로그램 시행 (국제시장 진출에 적합한 스타트업 선정, 해당 분야 국제화 교육·컨설팅, 해당 품목 전문 멘토링, 투자유치 피칭 지원 및 네트워킹 행사 실시 등)	-	구. 경제부

이밖에, 농업기술분야 국제화 지원(농축산부)가 있다.

⑦ [M486] 혁신환경 지원 사업의 이행 및 개선(총 2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21~'22)	주관부처
[5474] 지역과학기술개발 프로그램 개선 (낙후지역인 북부·북동부·중서부 지역 소재 연구자·연구기관·기업 대상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관련 연구인력들이 해당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에 지속적으로 재직하도록 유도)	26백만헤알	CNPq

이밖에, 국가혁신환경조성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Apoio aos Ambientes Inovadores) 추진 추가 공고(과학기술혁신부, Finep)가 있다.

⑧ [M667] 민간 네트워크 5G 도입을 통한 농업 및 제조업, 도시, 보건 인프라 혁신(총 3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3721] 5G 모바일 생태계 진단 및 현황분석 실시 (5세대 모바일 기술 적용을 위한 혁신환경 실태조사)	1.3백만헤알	구. 경제부
[7838] 농어촌지역 통신환경 지원 프로그램 실시 (디지털농업 종사자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련 기금[FUST; Fundo de Universalização dos Serviços de Telecomunicações]이 제시한 전략 지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통신환경을 개선. 이를 위해 관련 기업, 스타트업, 관할 공공기관간 협력 추진)	-	농축산부

이밖에, 기간산업·농업비즈니스·도시 총 3개 영역에 민간 5G망 시범적용(ABDI)가 있다.

⑨ [M684]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위한 전략행동 이행 지원 (특히, 기존 제도개선 및 신기술 적용제도 도출, 사이버보안 역량의 강화·혁신 등) (비주요 단일과제) : 교육·실험·취약성평가·공동작업·실시간소통·현장실습·신규아이디어검증·사이보보안솔루션 등을 위한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Cyber Arena 프로그램 지원(ABDI)이 있다.

⑩ [M693] 혁신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한 Lei 11,196/2005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단일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1554] Lei do Bem (Lei 11.196/2005) 관련 조항 개정 추진 (현재 논의중인 개정 필요사항은 세액 누락 상황에 있는 기업에 대해 후년도 혜택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쳐 결정 예정)	-	과학기술혁신부

⑪ [M850] 보안 및 프라이버시, 투명성 확보로 데이터 중심 혁신 촉진 (총 2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5565] 농업관련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데이터보호법(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이행상황 점검·관리 (동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동 법률 안내 책자 발간)	-	농축산부
[6971] 시범프로젝트를 통한 데이터관리 법적체계 개선 (데이터 공유·이전을 통한 혁신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①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 데이터 공유·이전의 정확한 법적개념 설정 ② 기관간 데이터 관리체계 및 소관 등을 둘러싼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 등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선결되어야 함)	-	구. 경제부

⑫ [M862] 혁신적 제품·서비스·공정에 AI 적용 확대(총 4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0575] 인공지능 공공구매 지침 개발	-	구. 경제부
[0999] 사물인터넷, 알고리즘 예측 등 신기술 채택을 위한 기술환경 및 신기술 채택으로 인한 조직 및 인력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 경제부
[6B19] 브라질인공지능전략(EBIA; Estratégia Brasileira de Inteligência Artificial) 추진과제 실행 지원 (현재 EBIA 거버넌스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한 자원 배분 등)	-	과학기술혁신부

이밖에, 스마트시티구현헌장(Carta Brasileira para Cidades Inteligentes)에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지역개발부)가 있다.

⑬ [M937] 기술발주 등 혁신공법 정부구매 촉진·권고(총 5개 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0716] 기술발주제도(Encomendas Tecnológicas) 안내 포털(Hubtec) 개설 (제도소개·성공사례·기술적요건 등 관련 정보 안내)	-	ABDI
[1382] 오픈이노베이션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 통합 교육·워크샵 실시	0.12백만헤알	구. 경제부

이밖에, 기술발주제도(Encomenda Tecnológica) 이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지원 실시(구. 경제부), 보건분야 공공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혁신제품 구매 이점(기술이전 및 국내생산 촉진) 홍보(보건부), 기술발주를 통한 국방분야 혁신제품 창출 촉진(국방부)이 있다.

⑭ [M965]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총 7개과제)

<주요 단위과제>

주요내용[식별코드]	예산 ('21~'22)	주관부처
[0676] 딥테크 스타트업 신 지원모델 구축 (연구개발에 대한 공동투자를 통한 무상출연금 지원 등 추진)	14.5백만헤알	EMBRAPII
[7010] 신 농식품 체인 개발 및 농식품 다양화를 위한 혁신전략 지원 체계 및 지침 수립 (재배, 합성, 포장 등 다방면의 추진 전략 수립)	-	농축산부

이밖에, 신기술지원 프로그램 실시(Finep), 자동차산업 투자자매칭 지원 프로그램 실시(Finep), 통신분야 혁신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실시(Finep), 신제품·신공정개발 대출지원(Finep Inovacred) 프로그램 실시(Finep), 각종 혁신프로젝트 대출 지원 실시(Finep) 등이 있다.

#### 5-4. 동 전략의 함의

동 전략은 무엇보다 그간 브라질의 과학기술전략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던 혁신전략이 별도의 독립적 전략으로서 수립·추진되는 첫 출발이 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과학기술혁신부(MCTI) 독자체계로 운영되던 국



가 혁신전략으로는 더 이상 단일 부처의 협소한 정책체계로는 혁신기  
본법이 예정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 혁신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내용상 동 전략은 장비·인프라 등 기반구축에서부터 혁신관련 개별  
주체간 협력, 기관내 혁신관련 시스템 정비 등 상당히 광범위한 차원  
에서 현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관 사업  
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보다 유기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역할인데 추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전략추진의  
성패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부과제들의 경우 기존 진행사업의 단순 연장선에서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투입 예정 예산규모가 정해지지 않은채로 수  
립·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성과 달성을 우려하  
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2)</sup>.

---

32) O desempenho inovador do Brasil: estagnação e perspectivas negativas, 2021.10.25. Estadão

## 6. 브라질의 스타트업 발굴·지원 체계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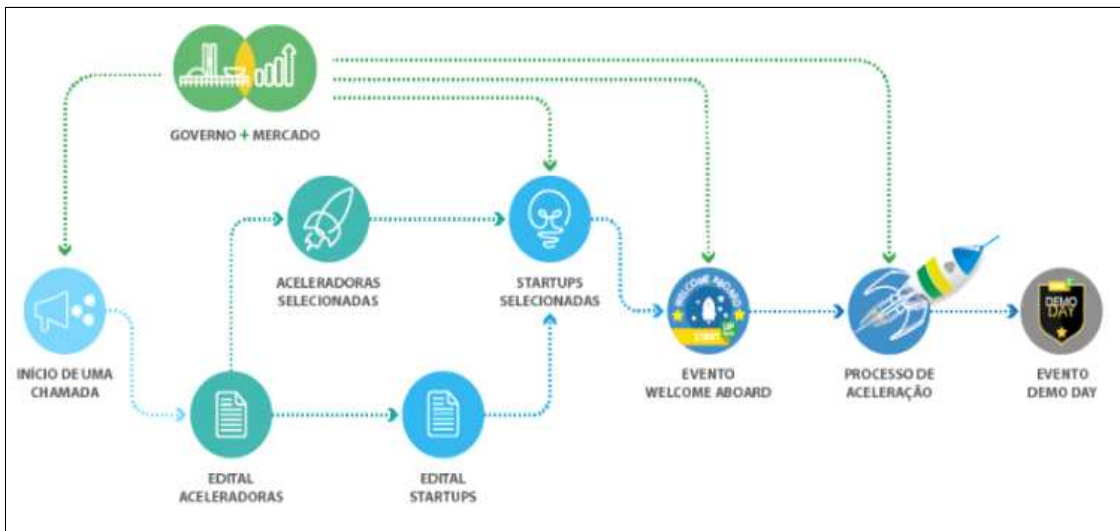
### 6-1.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분화·발전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는 연방정부 과학기술혁신부(MCTI)와 그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식되었던 바가 크다. 초기 생태계에서 활동을 개시한 소수의 벤처캐피털들은 투자 수익성 및 자금의 회임기간 등을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매출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성숙도가 높은 일부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보다 초기단계(early stage)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점점증하게 되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부(MCTI)와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은 정책기조상 자연스럽게 국가 과학기술 수준의 개선을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의도하였을 것이므로 지원사업상 주된 타겟이 기술적 기반이 보다 깊이 요구되는 일부 산업군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기조는 상파울루를 비롯한 브라질 동남부의 일부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에 대한 편중적 발굴·지원 체계가 예정될 수 밖에 없었다.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11년 이후의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지원정책 기조는 이렇게 i)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수요 ii) 업종·지역적 다양화의 필요성 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연방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개별 지역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대다수의 지원사업이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Acelerador)와 보다 전문화·다양화된 전문 멘토단이 지원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2012년 11월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부(MCTI) 주관 Startup Brasil 프로그램은 지원사업 공고(Edital)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모집하고, 이들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개별 스타트

업을 모집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전형적인 초기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체계는 비슷한 시기 개시된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S: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가 주관하는 InovAtiva Brasil, 통신부(MiniCom: Ministério das Comunicações)의 InovApps 등 초기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17. Startup Brasil 프로그램 실행 체계>

\* 출처 : <https://www.startupbrasil.org.br>

상기하였듯 스타트업 발굴·육성의 초기 생태계 구축을 과학기술혁신부(MCTI)가 주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등 일부 IT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위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었다. 이에, IT 업종 이외의 보다 다양한 업종과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수요가 점증하게 되었는데 브라질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이들 낙후지역의 스타트업들은 과학기술혁신부(MCTI) 주관 지원사업으로 발굴·육성된 기존의 스타트업들 보다 사업적 진화가 훨씬 더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이른 단계의 아이디어를 성숙화시켜 줄 수 있는 전문 멘토단이 광범위하게 필요하였고, 전문 멘토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S)가 주관하는 InovAtiva Brasil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2010년대 초반 이후 브라질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정책

적 필요에 적응·진화하여 온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현재 브라질 전지역·전업종을 아우르는 초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중남미 최대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출범 이후 최근까지 동 프로그램의 발전·경과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i) 브라질 스타트업 지원체계의 전업종·전지역적 확산, ii) 엑셀러레이션 및 투자지원 등 통합적 육성 체계로의 분화·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관 : 개발산업통상부(MDICS), 브라질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 브라질스타트업협회(ABSTARTUPS)
- 주요활동 : 기술적 문제에 대한 멘토링, 코칭, 경영적 문제에 대한 교육 등 엑셀러레이션 외에도 투자, 잠재 고객 네트워킹 등 주선
- 성과 : '23년까지 총 3,500개 스타트업, 1만4천여 기업가 배출  
1천명 이상의 멘토단 보유
- 연혁
  - (2013년) 성장 단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위주로 구성되었던 스타트업 생태계에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MDIC가 McKinsey의 전문성과 자금지원을 받아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교육, 멘토링 등 지원하는 최초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의 엑셀러레이션 행사 개시. 50개 스타트업 지원
  - (2014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브라질 전역의 잠재 스타트업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실리콘 벨리의 온라인 멘토링 전문회사인 Everwise 와 협업하여 브라질 현실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멘토링 지원 체계 구축 및 가동, 이를 통해 2014년 브라질 국내 엔젤투자자 그룹을 대상으로 첫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팀 20개를 미국 실리콘벨리에 체험훈련 파견
  - (2015년) 브라질 전역에 초기 스타트업 발굴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및 멘토링, 스타트업과 멘토를 연결해주는 자동화 플랫폼 등 추가적인 기반이 필요 --> 당시 브라질 전역에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테크노파크를 건설 중이던 Sinapse da Inovação 사업을 추진하던 CERTI 재단이 동 InovAtiva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게됨 (동 프로그램은 브라질 공공행정대학(Enap; Escola Nacional de Administração)으로부터 공공정책 혁신상 수여) 특히, 영국계 펀드(Prosperity Fund) 및 영국계 엑셀러레이터(The Bakery)로

부터의 지원과 브라질 국내 투자유치 기관인 Apex-Brasil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Sebrae와 협력하여 브라질 국내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된 12개 스타트업을 2016년 영국에 체험훈련 파견 → 스타트업 국제화를 위한 StartOut Brasil 프로그램의 시초가 됨

- (2016년) 연간 2회 개최, 지역적 오프라인 기반을 10개 확보, 후보 스타트업 풀 확보 체계 마련 등 프로그램 고도화 개시, SEBRAE를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관으로 하여 전국 각지의 후보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흡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시.
- (2017~18) 연간 지원대상 스타트업 수를 600개로 확대. 멘토링 전문가 수 1천명 돌파. 프로그램 지원신청 스타트업이 모집 예정 수를 최초로 상회. 프로그램 내 우수 스타트업에 대해 외부 엑셀러레이터에 주선 개시. 외부 민간 기관의 참여 증가. OECD 혁신 분야 벤치마크 공공정책으로 선정
- (2019)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주선, 특수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적인 파트너십 지원 등을 위해 보다 폭넓은 외부 기관 및 투자회사 등과 연계하는 InovAtiva Conecta 개시
- (2020) Covid-19로 인해 프로그램의 세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급히 재편하여 실시하였음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사들의 참여율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동 시기 Covid-19로 인한 사회 보건 문제 솔루션을 개발한 66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피칭을 실시.
- (2021) 지원대상 스타트업 수를 800개로 확대. 2013년 프로그램 개시 이후 총 2,500여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성과로 국내외 스타트업 정책 평가 기관(Startup Awards, Ranking 100 Open Startups)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중남미 최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의 입지를 다짐.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아이디어 구축 지원, 비즈니스 엑셀러레이션, 외부 기관 주선 등 스타트업 육성의 전 과정을 담당하며, 브라질 내 전체 혁신생태계 내 주요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음
- (2022) 기존 프로그램을 각 지역 맞춤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버전인 Powered by InovAtiva를 낙후지역인 북동부 파라이바(Paraíba)주 Campina Grande市에서 시범 실시. 해당 지역 20명의 멘토와 15개 스타트업 지원

<표 12. InovAtiva Brasil 프로그램 연혁 및 성과>

\* 출처: <https://www.inovativa.online>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자리잡게됨에 따라 브라질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 연구기획기금운용원(Finep),

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Embrapi) 등 여러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연이어 출범하게 되었고 각 주 및 주요도시 차원에서도 특성화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 6-2. 국가 스타트업 지원 추진 위원회

이와 같이 201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다양한 업종·지역에서 다양한 발전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남에 따라, 전 국가적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보우소나루(Jair M. Bolsonaro) 정부 시기인 2019년 11월 헌법상 대통령에 전속으로 부여된 행정부 내 위원회 등의 설치 등의 권한에 따라 정부의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축이 된 「국가 스타트업 지원 추진 위원회(Comitê Nacional de Iniciativas de Apoio a Start-ups)」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의 법적 목표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여러 지원시책을 연계·조정” 하는 것이고, 관할 업무로 i) 연방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시책 및 프로그램의 연계·조정 ii) 스타트업 지원 시책 추진과 관련된 경험과 선례의 공유 촉진 iii)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시책을 망라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관리 iv)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결과 정보의 취합·평가 등 4가지가 제시되고 있다(Decreto 10.122/2019).

동 위원회는 i)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ii) 과학기술혁신통신부(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Inovações e Comunicações), iii)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iv)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v) 국가 과학기술 개발 위원회<sup>33)</sup>(CNPq; Conselh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vi) Embrapa<sup>34)</sup>(Empresa Brasileira de Pesquisa Agropecuária), vii) Finep<sup>35)</sup>(Financiadora de

33) 1951년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집행은 물론 관계부처와의 정책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나, 1985년 과학기술부(Ministério de Ciência e Tecnologia) 관할 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포괄적 정책 수립·집행 기능이 과학기술부로 이전되면서, '90년대 이후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관련 시책에 집중하여 대학 및 민간기업 지원 기능으로 선회함.

34) 1973년 농축산부(Ministério da Agricultura e Pecuária) 관할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농축산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 추진

35) 1965년 당시 미주개발은행 등 외부 지원자금을 기반으로 브라질 국내 경제사회개발은행

Estudos e Projetos), viii) ABDI<sup>36</sup>(Agência Brasileira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 ix) Apex-Brasil<sup>37</sup>(Agência Brasileir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 x) Sebrae<sup>38</sup>(Serviço Brasileiro de Apoio às Micro e Pequenas Empresas) 등 총 1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월에 1회 개최되며 경제부와 과학기술혁신부가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한다.

### 6-3.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위와 같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연방·주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동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확립이 되는 한편, 위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이 제정되면서 2021년 7월 브라질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이 수립·발표된다. 여기서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정책적 성과로 국가혁신전략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 제정된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 (Marco Legal das Startups e do Empreendedorismo Inovador, Lei Complementar 182/2021)을 들 수 있다.

- 
- (현 BNDES의 전신인 BNDE)이 운영하는 산업분야 연구·개발 기금으로 출범. 1967년 당시 기획예산부(Ministério do Planejamento) 관할의 공기업으로 확대 재편된 후, 1971년 당시 설립 초기 였던 국가과학기술기금(FNDCT; Fund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운영까지 겸하게 됨. 1985년 과학기술부(Ministério de Ciência e Tecnologia) 관할로 이관된 후, 90년대를 거치며 전 부처에 연관된 각종 과학 기술 및 산업기술 관련 지원·조정 기능 수행중
- 36) 2004년 브라질 산업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예산은 특별세의 일종인 CIDE(Contribuição de Intervenção no Domínio Econômico)로 충당되며 개발산업통상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와 경영협약을 맺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산업계 및 공공영역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이다.
- 37) 외교부(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관할의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기관. 원래 1990년대 중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SEBRAE(Serviço Brasileiro de Apoio às Micro e Pequenas Empresas) 관할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003년 CIDE(Contribuição de Intervenção no Domínio Econômico)로 충당되는 예산 기반과 함께 독립적 기관으로 격상됨.
- 38) 1972년 당시 경제사회개발은행(BNDE)과 기획예산부(Ministério do Planejamento) 시책에 따라 설립. 주로 각 주와의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 수행. 1985년 개발산업통상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관할로 이관되었으나 예산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부실화됨에 따라 1990년 CIDE(Contribuição de Intervenção no Domínio Econômico)의 예산 지원을 받는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

혁신기본법과 이에 이은 브라질 국가혁신전략이 혁신생태계 내의 여러 혁신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도한 거시적인 정책체계인 반면에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은 및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산 제품의 판로확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규정한 보다 미시적인 정책수단이다. 혁신생태계 내의 중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적 운신의 폭을 넓혀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라 할 수 있다.

우선 동 법률은 스타트업의 정의·요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스타트업은 “최근 개시하거나 창업한 사업 또는 기업조직으로서 그 사업활동이 경영모델·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혁신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매출액이 16백만헤알(약 4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업력이 10년(법인 등록 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된다.

특히, 동 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간 해석상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요건이 내포되어 소송 등 법적다툼 또는 브라질의 전체적인 법체계 내에서의 집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었던 기존 스타트업 개념을 보다 객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종래에는 스타트업 개념을 “생산, 경영·서비스·제품에 관한 체계·방법·모델을 개선하는 혁신적 성격의 기업으로서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점진적 성격을 갖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과 불연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식 상업화 및 매출 시현 이전까지 임시적 판매 등 지속적인 시험과 검증이 필요한 불확실성하에서의 혁신을 진행하는 기업”일 것을 요구하였다<sup>39)</sup>. 이는 학문적인 논의에서의 스타트업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혁신성의 요건 중 ‘지속적인 시험과 검증의 필요성’ 등과 같이 집행 현실에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에서는 기업활동의 혁신성을 자기 선택에 맞김으로서 추후 혁신성과에 관한 증명을 해당 스타트업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었다. 스타트업은 설립 시 “새로운 상품·서비스·공정의 생산환경에 새로움이나 개선을 도입하는

39) 2006년 제정된 소기업·소상공인법(Estatuto Nacional da Microempresa e da Empresa de Pequeno Porte, Lei Complementar 123/2006)에서 일반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조세징수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의 정의 조항을 둔 바 있다.



혁신적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시하거나 3-2.에서 설명한 바 있는 Inova Simples에 따르는 특별규정 체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혁신성에 대한 법적다툼 등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이를 증명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동 법률이 새롭게 규정한 또 하나의 주요한 사항으로 스타트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엔젤투자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의도하였다. 엔젤투자자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자본적 기여에 따른 보상을 받으나 경영에 대한 참여 및 소유주식에 기반한 의결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엔젤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정식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채무 또는 기타 법적책임이 엔젤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만일, 엔젤투자자가 추후 정식 주주가 되려면 회사측과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capital social)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식의 매수·납입 옵션, 전환사채, 엔젤투자계약, 경영(지분)참여가 의도되지 않은 기타 투자형태 등은 스타트업의 지분(capital social)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스타트업의 정식 주주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의결권과 경영참여에 의해 판단토록 하였다.

동 법률은 또한 스타트업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이나 위해성 등이 아직 검증되기 전이라 하여도 임시적인 허가에 기반하여 제한된 영역에서 제품 개발 및 시험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sandbox regulatório)를 도입하였고, 스타트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160만헤알) 이하의 구매건에 대해서는 시범구매가 가능토록 하고 시범구매 결과 동 제품·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계약기간 24개월의 정식 구매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추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24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정부 시범구매 제도는 3-3.에서 설명한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 등 각종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와의 연속선상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법

률은 스타트업의 연구개발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인 장치를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서명한 양여 및 위임에 따라 연구개발혁신에 대한 투자 의무가 있는 기업은 동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의 펀드<sup>40)</sup>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동 법률은 혁신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어 브라질 혁신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갖는 위상을 보다 높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의 부여 조항의 경우 브라질 노동법 체계와의 충돌 우려로 인해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고,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 특례 조항 역시 금융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한 정부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시장 접근 확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품개발 활성화 등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달성하며 비슷한 시기 발표된 브라질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의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0) 에퀴티 펀드(fundos patrimoniais, Lei 13.800/2019) 또는 시드캐피탈, 초기기업(empresas emergentes), 연구개발혁신 집약적 기업(empresas com produção econômica intensiva em pesquisa, desenvolvimento e inovação) 투자 목적으로 분류된 경영참여형 투자펀드(FIP: fundos de investimento em participações)

## 7. 결론 :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방향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브라질의 스타트업-벤처 초기 생태계는 브라질 정부 과학기술 혁신부(MCTI)가 주도한 벤처캐피털(VC) 지원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시기 벤처캐피털 펀드는 주요 연기금의 출자에 크게 의존하였고 이들 펀드들은 점차 업력이 오래된 후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국가 주도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둘째, 종래 브라질의 자본시장은 거시경제적 변동에 취약하고 고정수익 채권형 유가증권 위주의 보수적 시장이어서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는 공영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러나 2010년대를 거치며 이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중소형 은행의 비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자본시장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는 또한 증권거래소 및 FIP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브라질 국내의 투자자 친화적 제도개편, 전 세계적 스타트업 투자 붐 사이클과 맞물리며 2010년대 브라질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벤처캐피털의 펀드수익률 및 회수방식, 투자기업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브라질 국내 벤처캐피털(VC) 및 사모펀드(PE)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발굴·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전체 벤처캐피털(VC) 펀드 결성 규모가 주기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2010년대 중반 정점을 끝으로 결성액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2010년대 초중반 브라질은 국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가 활황을 보일 정도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통한 스케일업에서는 성과를 보였으나, 혁신생태계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오랜기

간 정체되었다. 2016년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 등장 전까지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 단순 창업활성화 차원의 부분적 제도 개편만 이어졌을 뿐인데,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브라질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성적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혁신기본법 마련 이후에서야 공공-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이 개시되어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민간 기술이전 노력 등 기업친화적 방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와 같은 정책수단의 다양화, 국가 R&D 및 혁신프로젝트 관리감독 합리화와 같은 행정간소화 등 다차원적인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넷째, 혁신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각종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2021년 7월 브라질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이 수립되었다. 내용상 동 전략은 장비·인프라 등 기반구축에서부터 혁신관련 개별 주체간 협력, 기관내 혁신관련 시스템 정비 등 상당히 광범위한 차원에서 현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관 사업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혁신기관(ICT)의 역할인데 추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전략추진의 성패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세부과제들의 경우 기존 진행사업의 단순 연장선에 불과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투입 예정 예산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수립·진행되는 과제가 상당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브라질 국내의 전반적 혁신생태계의 발전이 오랜 기간 정체상태를 보인 것과는 달리 국가 기관에 의한 각종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분화·발전하여 동 사업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컨트롤타워(국가 스타트업 지원 추진 위원회)가 등장할 정도였다. 한편, 일반 소기업과 구별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규제완화·투자자보호·판로확보를 골간으로 한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 (Marco Legal das Startups e do Empreendedorismo Inovador, Lei Complementar 182/2021)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부여 조항,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접근 특례 조항 등이 동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내용적 연장선상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21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의 스타트업 성장환경은 물론 전반적인 혁신생태계의 수준이 한차원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그 간 브라질의 혁신생태계의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커다란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정책적 당위성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인구 2.1억의 단일시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브라질은 지리적 한계와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우리에게서 무척 낯선 시장임이 분명한 반면, 국내적으로 브라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겠으나 우선 현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털 등과 국내 관련 기관과의 기능적 협력점 도출을 위해 사전 연구 등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 소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 브라질 현지에 먼저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과 교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네트워크를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소통의 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지 상파울루 등지에 형성되어 있는 동 네트워크는 기존 대기업 진출에 따른 것이거나 개별적인 이민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관련 지원기관과의 협업·공존의 경험이 전무하다.

둘째, 브라질 내수 시장의 규모와 수준, 스타트업 발굴 체계의 성숙도에 비해 브라질 벤처캐피털(VC) 펀드의 조성규모 등 벤처투자 자금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국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혁신기본법(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과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 (Marco Legal das Startups e do Empreendedorismo Inovador, Lei Complementar 182/2021)에 따라 도입·시행중인 기술발주((Encomenda Tecnológica), 규제샌드박스(sandbox regulatório)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스케일업을 노리는 브라질계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제품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제도 시행 초기에 기회를 잡는 스타트업에게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도 브라질 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전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국내 이공계 연구인력의 브라질 현지 연구계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 등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브라질 국가혁신전략(Estratégia Nacional de Inovação)에서는 외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혁신프로젝트 수행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Embrapii)와 같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브라질 내 많은 과학기술혁신기관(ICT)들이 관련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채널을 통한 현지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혁신생태계 조성은 과학기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MCTI)와 산하 연구기획기금 운용원(Finep)에서 주관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 관련 기관 등과의 기관간 협력 시에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협력의제를 발굴함이 적절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문헌 및 자료(영어)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23, Transparency International.
- Document of World Bank (1994). The Development of Brazilian Capital Markets. World Bank.
- Doing Business 2020. WORLD BANK GROUP.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2/2023 Global Report Adapting to a “New Normal”. GERA.
- Global Innovation Index 2022: What is the future of innovation-driven growth? WIPO.
-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2023. StartupBlink.
-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1. Crunchbase.
-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 InsideVC 2021 Venture Capital in Brazil. Abvcap & ApexBrasil. (2021)
- Leamon, A., & Lerner, J. (2012). Creating a venture ecosystem in Brazil: FINEP’s INOVAR Project. Documento de trabalho, (12-099).
- Fonseca, M. A. M. A., Kanitz, R. V., & Bassani, R. H. (2014).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Industry Performance in Brazil: 1990-2013.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Retired), 17(4), 48-58.
- Park J. (2012). Brazil’s Capital Market: Current Status and Issues for further Development. IMF.
- Performance of Brazilia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Deals From 1984 to 2022. Abvcap. (2022).
- Performance of Brazilia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Funds 1994-2022. Abvcap. (2023).

- Rodrigo, O.(2020) The Brazilian Tax System: A Diagnostic Review and Reform Possibilities. UNDP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olicy Document Series

#### 문헌 및 자료(현지어)

- Estrutura Legal dos Fundos de Private Equity e Venture Capital no Brasil. Abvcap. (2015)
- Guia de Elaboração de Proposições do Projeto Redução do Custo Brasil. Ministério da Economia (2021)
- Jorge Ribeiro de Toledo Filho. (2020). Mercado de capitais brasileiro: Uma introdução. Cengage Learning.
- Mercado de Capitais e Inovações Regulatórias do BCB definem o Novo Padrão de Financiamento das Empresas Brasileiras. Fundação Instituto de Pesquisas Econômicas. (2022)
- Novo Marco Legal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2018)
- Pesquisa de Inovação PINTEC 2017 Resultados principais. Diretoria de Pesquisas IBGE (2020)
- Roncaratti, L.S.(2017). Incentivos a startups no Brasil : os casos do Startup Brasil, InovAtiva e InovApps. Inovação no setor público : teoria, tendências e casos no Brasil, Brasília : Enap
- Práticas de inovação e suas principais barreiras. 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2021).

#### 인터넷 사이트

- 브라질 정부 스타트업지원정책위원회(CNIAS)」 홈페이지  
<https://www.gov.br/startuppoint/pt-br/institucional/sobre-comite-nacional>
- 브라질 정부 국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포털 「Startup Point」 홈페이지  
<https://www.gov.br/startuppoint/pt-br/iniciativas>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MCTI) 「국가혁신정책(Política Nacional de Inovação)」 홈페이지 <https://inovacao.mcti.gov.br/>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MCTI) 소관 지원사업 「Startup Brasil」 홈페이지 <https://www.startupbrasil.org.br/>
-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MDICS) 소관 지원사업 「InovAtiva Brasil」 홈페이지 <https://www.inovativa.online/>
- 브라질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부(MEMP) 홈페이지 <https://www.gov.br/memp/pt-br>
- 브라질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Sebrae) 홈페이지 <https://sebrae.com.br>
- 브라질산업연구혁신공사(Embrapii) 홈페이지 <https://embrapii.org.br/>
- 브라질 벤처캐피털사모펀드협회(Abvcap) 홈페이지 <https://www.abvcap.com.br/>
- 브라질 회계 및 조세 전문 블로그 콘타빌리제이(기업규모별 법인세 부과체계) <https://www.contabilizei.com.br/contabilidade-online/simples-nacional/>
- 브라질 증권거래소(B3) 홈페이지 [https://www.b3.com.br/pt\\_br/para-emissores](https://www.b3.com.br/pt_br/para-emissores)
- 브라질 금융자본시장 참여기관 협회(ANBIMA) 홈페이지 [https://www.anbima.com.br/pt\\_br/pagina-inicial.htm](https://www.anbima.com.br/pt_br/pagina-inicial.htm)

## 관련법령

- 브라질 입법정보 포털 (Portal da Legislação) <https://www4.planalto.gov.br/legislacao>
  - 2015년 수정헌법 Emenda Constitucional 85/2015
  - “혁신법” Lei da Inovação (Lei 10.973/2004)
  - “소기업소상공인일반법” Lei Geral da Micro e Pequena Empresa (Lei Complementar 123/2006)

- “1인유한회사법” Lei da Eireli (Lei 12.441/2011)
- “정보접근법” Lei de Acesso à Informação (Lei 12.527/2011)
- “혁신기본법” Marco Regulatório da Inovação (Lei 13.243/2016)
  - 혁신기본법 관련 시행령 (Decreto 9,283/2018)
  - 국가혁신정책 관련 시행령 (Decreto 10,534/2020)
- “예비혁신기업법” Lei Inova Simples (Lei Complementar 167/2019)
- “경제자유법” Lei Liberdade Econômica (Lei 13.874/2019)
- “스타트업 및 혁신창업 기본법” Marco legal das startups e do empreendedorismo inovador (Lei Complementar 182/2021)
- 브라질 증권위원회(CVM) 입법정보 사이트  
<https://conteudo.cvm.gov.br/legislacao> “Resolução CVM 175/2022”

## 언론기사

- MIT: Inovação no Brasil passa por instituições ‘blindadas’ e parcerias. Veja Mercado. 2019.05.16.
- O desempenho inovador do Brasil: estagnação e perspectivas negativas. Estadão. 2023.02.02.
- Startups e universidades: Como criar conexões para fomentar a inovação. Startups.com.br. 2022.08.08.
- Marco Legal das Startups entra em vigor; entenda o que muda para empresas. Exame. 2021.09.01.
- Marco Legal das Startups é estímulo ao empreendedorismo inovador. Consultor Jurídico. 2022.01.27.
- Apesar da pandemia, Bolsa de Valores teve ano de recordes. E o que esperar de 2021? Gazeta do Povo. 2020.12.30.